

제2054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 혁신의 해 될 것” 12



왕년의 미녀스타 강현숙 “70년대 女농구 인기” 18

코스피(9월)	2064.71 (+39.44p)	코스닥	679.74 (+11.25P)
환율(달러당 원화)	1122.10 (-2.0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09% (-0.0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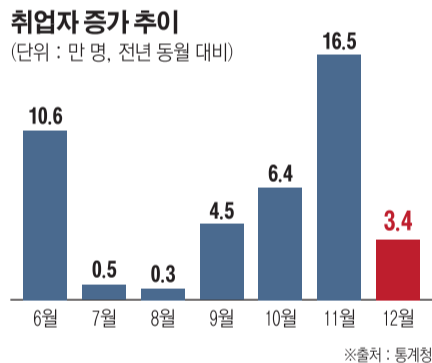


LG 조형물에 시선 집중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올레드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2·9·10·12면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 빛은 ‘고용 참사’ 출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작년 취업자수 증가 10만명 미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
12월 3만4000명 증가에 그쳐
실업률 3.8%, 17년 만에 최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 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위기 막바지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6만5000명까지 회복됐던 취업자 증가 폭이 12월 3만4000명으로 둔화한 탓이다. 연간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인 3.8%(107만3000명)로 치솟았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 7000명 늘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일자

리 정부'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30대(-10만 3000명)와 40대(-13만5000명), 제조업(-12만7000명)과 도·소매업(-6만3000명)에서 어려움이 지속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호조로 20대 등 일부 계층의 고용이 늘었으나, 전반적인 둔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40대는 12월 기준으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에 더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과도·소매업 취업자 비율이 높아져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3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1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5만6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6만9000명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2만6000명 줄며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3만 1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3.4%로 0.1% 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대로 실업자는 20대(-2만5000명), 30대(-1만7000명)에서 감소했으나, 50대(3만2000명), 40대(2만9000명), 60세 이상(1만 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15만 명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2만3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 허용 탑승자 모집 콜버스 사업 가능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앞으로 도시 주택의 빈방 등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에게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주택의 빈 공간을 내국인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는 농어촌 지역에 서만 가능하다.

단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연 180일 이내 영입이 전제조건이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는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

다. 허용 시점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용자 지원과 우수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업체별 전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세종과 부산은 전용 구역 외 장소에서도 허용하는 등 자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카셰어링 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수소차와 전기차 합산 50% 이상 보유 업체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콜버스 등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기자 간담회에서 박정호 SKT 사장이 중간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박정호 SKT 사장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

“SK하이닉스 지분 20% → 30% 확대”...5조원 자금 필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차례 중간지주사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박 사장이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9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년 전 CES 2018,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에서 열린 IR 행사, SK그룹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등 수차례 중간지주사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SK하이닉스 지분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박 사장은 이날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하이닉스 추가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지, 지분 확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20%인 하이닉스 지분을 30%까지 늘리겠다.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따르면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자회사 지분율을 20.07%에서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분 30%를 확보하면 대주주로서의 위치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약 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은 SK텔레콤을 SK하이닉스의 모회사로 두고 기업 정체성을 ICT융복합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SK하이닉스는 SK(주)의 손자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M&A를 하려면 피인수 기업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

SK텔레콤이 SK(주)와 SK하이닉스 사이의 중간지주사가 된다면 이런 걸림돌은 사라진다. 더불어 SK텔레콤을 투자 지주사와 통신사로 분할하면 SK브로드밴드, ADT캡스, 11번가 등을 투자 지주사에 둘 수 있게 된다. SK그룹은 그룹 내 ICT 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애플 쇼크’ 2탄...아이폰 신모델 감산

판매 부진 1분기 10% 생산 축소
韓·日·대만 등 부품업체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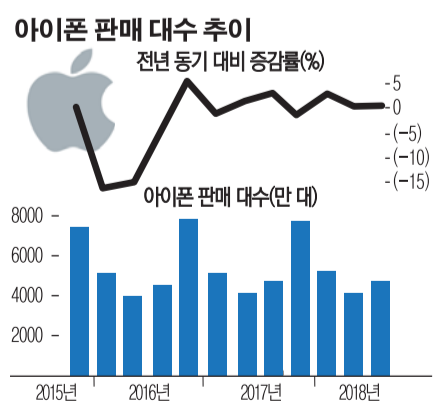
애플이 지난해 가을 출시한 신형 아이폰 3종을 10% 감산한다.

9일(현지시간)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올해 1분기(1~3월) 아이폰XS·XR·XR 등 신제품 3종의 생산량을 약 10% 줄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미 각국 부품업체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감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올 1

분기 아이폰 생산량을 4700만~4800만 대로 잡았지만 10%를 줄이면 4000만~430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분기에 5221만 대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애플은 2일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매출액을 하향 조정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경기 침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감 잡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에서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유지했지



만 지난해 2분기부터는 중국 화웨이에 밀려 3위로 내려갔다. 이번 감산으로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 등의 업체들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거점인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다운 기자 gamja@

‘삼성봇’ 선보인 김현석 사장 “AI 로봇 연내 상품화”



김현석(사진)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안에 삼성의 인공지능(AI) 로봇 제품을 상품화해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LG전자 롤러블 TV 상용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김 사장은 CES 2019 개막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왜 삼성은 로봇을 하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이번에 몇 가지 만들라고 했다. 그게 오늘 선보인 것”이라며 “로봇을 하려면 AI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중요하다. 로봇 AI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개발된 ‘삼성봇(Samsung Bot·사진)’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GEMS)’을 처음 공개했다.

김 사장은 “(전시 제품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공개하지 않은 제품이 더 빨리 상품화될 가능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등 AI 중심 플랫폼 완성 단계

LG ‘롤러블 TV’ 경제성 의문 프로토타입 제작 큰 의미 없어

TV에 애플 ‘아이튠즈 앱’ 탑재 협력 통한 생태계 확대 시너지

성이 높다. 올해 내에 몇 개의 로봇 제품이 상품화돼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성을 조사하는 단계인데 일부는 조사가 끝났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역시 이 로봇의 중심은 AI”

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LG전자가 CES에서 공개한 롤러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해서는 “롤러블 TV도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성이 나온다면 롤러블 TV를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중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 사장이 롤러블 TV에 대해 “TV 제조사들의 전략은 각각 다르다”며 “아직까지 공감 가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덧붙인 설명이다.



김 사장은 삼성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해”라고 강조했다. 삼성 AI생태계와 파트너기업 생태계가 합쳐져 대동한 협력모델을 통해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삼성전자가 구글, 아마존 등과 협력하면

서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 등 타사 AI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일부 걱정에 대한 해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스마트 TV에 구글·아마존과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앱을 애플 이외 기기에 처음으로 장착했다.

김 사장은 “과거 스마트폰은 다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만의 표준을 각 업체가 주장해 서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CES에서 크게 화두가 된 삼성과 애플의 협력(아이튠즈, 에어플레이 삼성TV 탑재)도 같은 맥락에서 생태계 확대에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장은 “이번 CES의 핵심은 AI인 것 같다”며 “커넥티비티(연결성)라든지 5G(5세대 이동통신) 이야기도 했지만, 근본은 AI에서 시작된 것 같다. 제일 크게 발표했던 8K TV도 AI 기술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장수 제약기업, 세대교체 ‘新바람’ ... 경영승계 가속도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 장남’ 백인환 상무, 8년 만에 전무 승진 보령제약, 안재현 대표 선임 ... 동화약품, 오너 4세 경영 시동

장수기업이 많고 대부분 오너 중심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세대 교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너 3·4세대들이 속속 요직에 오르면서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신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백인환 상무를 마케팅본부 전무로 승진시켰다. 1984년생인 백 전무는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의 장남이다. 2011년 대원제약 마케팅팀 사

원으로 입사해 8년 만에 전무 자리에 올랐다.

대원제약은 창업주인 백부현 전 회장의 장남 백승호 회장과 차남 백승열 부회장이 공동 경영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중심에서 2015년 국내 최초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을 내놓으며 일반의약품까지 사업을 확장,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창업 60주년을 맞은 지난해 2800억 원의 매출(예산치)을 기록해 국내 제약사 순위



백인환 대원제약 전무 윤인호 동화약품 상무

로는 16위(2017년 기준)다.

백 회장과 백 부회장은 각각 두 아들을 두고 있지만 경영 수업을 받는 3세는 백 전무뿐이다. 아직 백 회장 형제의 나이가

60대 초반이라 즉각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후계 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제약은 지난 연말 오너 2세 김은선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안재현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전문경영인으로만 판을 짰 것은 1963년 창업 이래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김 회장의 장남 김정균 보령홀딩스 상무로의 경영 승계를 위한 전조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상무는 1985년생으로 2011년 중앙약대를 졸업한 후 삼정KPMG를 거쳐 2013년 보령제약에 입사, 3년 만에 상무

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 상무는 어머니 김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아버지 성인 유 씨 대신 김 씨로 개명했다. 보령제약그룹의 지주사 보령홀딩스의 지분 25%를 보유해 김 회장(45%)에 이은 2대 주주다.

올해 창립 122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은 오너 4세 경영을 준비 중이다. 윤도준 회장의 장남 윤인호 상무는 입사 4년 만인 지난해 초 상무로 승진했다.

1984년생인 윤 상무는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동화약품 재경·IT실 과장으로 입사해 2015년 전략기획실 부장, 2016년 전략기획실 생활건강사업부 이사를 거쳤다. 누나인 윤현경 상무도 2008년 입사해 남매가 나란히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www.kepco.co.kr

에너지에서 모든 시작
에너지산업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한국전력공사

잘리고, 떠돌다, 쓰러진 '젊은 가장'

40대 일자리 잔혹사

지난해는 40대에겐 일자리 수난의 해였다. 40대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혹독한 고용난을 겪었다.

9일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7000명 줄었고 고용률도 0.4%포인트(P) 하락한 79.0%에 그쳤다.

40대 남성 취업자는 6만7000명(0.7%P) 감소한 393만1000명으로 고용률은 91.9%였다. 40대 여성 취업자는 5만명 감소한 273만5000명으로 고용률은 0.3%P 빠진 65.7%였다.

20~24세 취업자는 129만2000명으로 7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3000명 감소했다.

30대 고용률은 0.4%P 상승한 75.7%를 기록했지만, 30대 남성 취업자는 6만6000명(0.5%P) 줄었다. 고용률은 89.7%였다.

50대는 4만4000명 증가한 634만6000명, 60대 이상은 23만4000명 증가한 432만4000명을 기록했다.

40대는 실업자와 실업률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40대 실업자는 전년보다

취업자수 11.7만명 줄어 고용률 0.4%P 하락
실업자수 13.6% 늘고, 실업률도 0.4%P 증가
남녀 불문, 他 연령대보다 혹독한 한 해 보내

13.6%(2만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0.4%P 상승한 2.5%였다. 전년과 비교해 청년층(-4.2%)을 빼곤 30대(2.9%↑), 50대(17.1%↑), 60대(15.7%↑) 등 대부분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산업별, 직업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6000명, 교육 서비스업은 6만명, 도매 및 소매업은 7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4만5000명이 줄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6만2000명, 건설업은 4만7000명, 정보통신업은 5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은 4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만2000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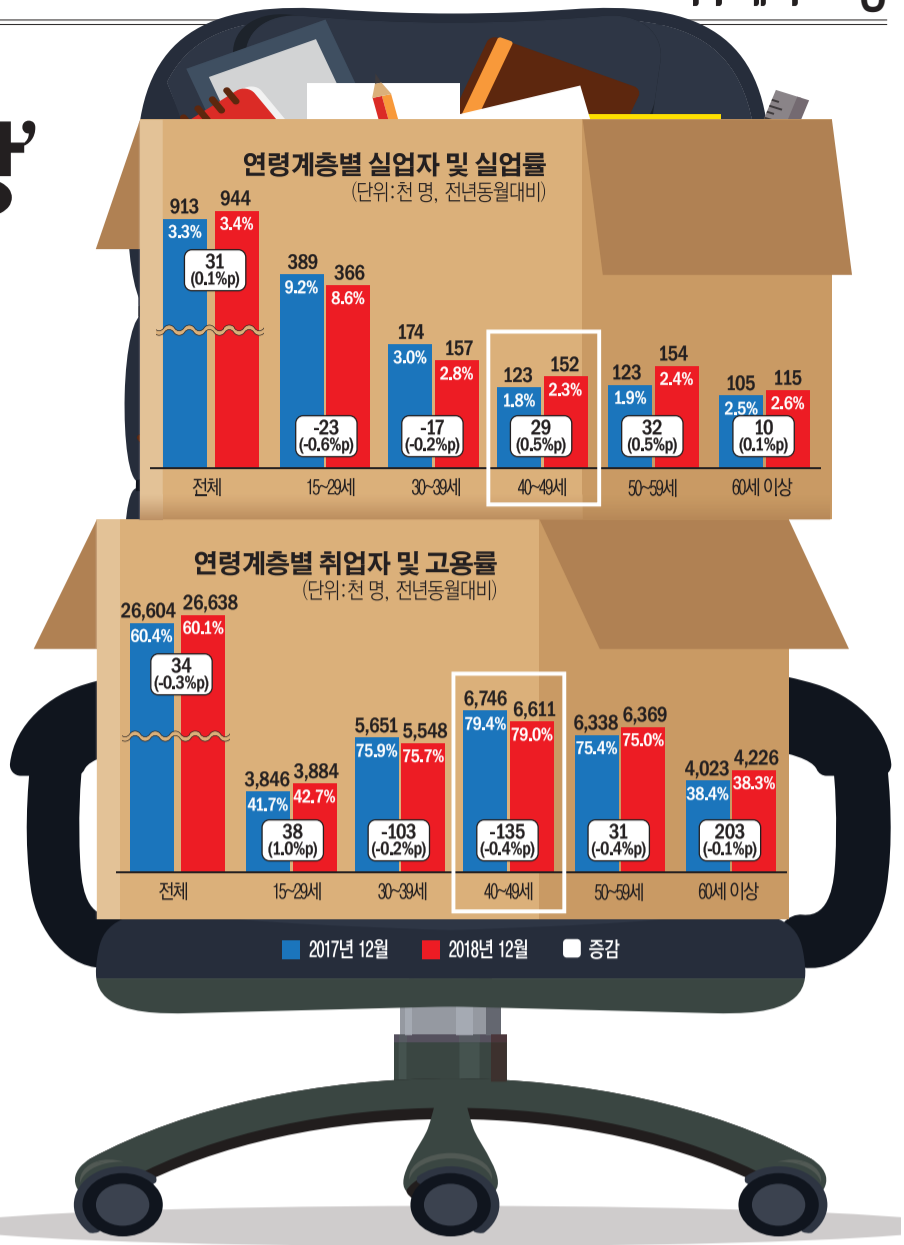
증가한 취업자가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어업에 쏠려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계절이나 기후

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종사자가 5만4000명, 단순노무종사자 5만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만2000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만8000명이 감소했다. 사무종사자는 9만8000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6만4000명, 관리자는 5만8000명, 농림어업속련종사자는 6만8000명 증가했다.

중사상 지위별론 임금 근로자가 15만명 늘었고, 비임금근로자가 5만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3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줄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정부 “2.3만명 공공기관 신규 채용” 전문가 “경기회복 없인 고용 악순환”

홍남기 부총리 채용박람회 참석
“공공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

“대부분 임시직...효과 미미
제조업 대체할 산업 키워야”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에도 못 미쳤을 정도로 현재 고용시장 여건은 어렵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경기 개선 없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식에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운영할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3000명 이상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총 2만3284명이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가 1547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55명, 한국공항공사 426명 등을 각각 신규 채용한다. 충남대학교병원(1428명), 부산대학교병원(789명) 등 의료기관도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설립 초기 입사자들의 정년 퇴직 시기가 도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754명을 뽑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과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착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취업자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 순증은 신규채용 인원에 크게 못 미쳐서다.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단기 일자리인 점도 한계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취업자 15만명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재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투자 등을 돕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고용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대부분 토목사업이라 발생하는 일자리가 한시적이고,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들의 투자가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점도 올해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투자증권의 1등!

고객이 주셨기에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K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증권부문

NH투자증권이 2018 KCSI 증권 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S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한 각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NH롭게 새롭게 NH투자증권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계 인사 당당히 만나라” 文 대통령, 노 실장에 주문

노영민 실장 “경제·산업 초점 2~3개 정책 기틀 마련할 것”
靑 전체 직원들에 “성과내야”



세계 인사를 만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며 “과거처럼 음습하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 달라”고 지시했다. 또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추후에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산업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2~3개 산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기틀을 마

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에 대해 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으로 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실장은 9일 처음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도 한 시간가량 신일철주금 압류 문제와, 연간 고용동향 등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고용률을 올리는 데 매진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에 노 실장은 오전에 모든 비서관실을 일일이 돌며 400여 명의 직원과 악수하며 인사를 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 실장을 수행한 모 행정관은 ‘만군 행군을 했다’며 ‘비서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통해 걸어 다니느라 힘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전체 직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을 찾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2기 청와대는 외교·안보보다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文 대통령, 오늘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문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 1층에서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이어 영빈관으로 이동해 10시 25분부터 약 70분간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진행 방식은 사전질의서, 질의순서, 질문자 선정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사회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질문 주제와 질문자를 직접 선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견의 특징은 최대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연단도 없애 기자단과 편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靑, 비서관 6명 인사... 정무 복기왕·국정홍보 여현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부속·정무·국정홍보·해외인문·춘추관장·문화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비서관급 중 공석 중이거나 총선 출마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들 중 일부를 먼저 교체한 것이다.

먼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후임에 유

송화 현 제2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에 신지연 현 해외인문비서관, 해외인문비서관에 김애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선임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 후임에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 공석 중인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남요원 문화비서관 후임에 양현미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을 임명했다.

유 춘추관장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부속비서관 등을 지냈다. 신 2부속비서관은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삼성중공업 법무실 수석변호사, 해외인문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 해외인문비서관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BC카드 컴플라이언스 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등을 맡았다. 복 정무비서관은 17대 의원(충남 아산)을 거쳐 아산시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여 국정홍보비서관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며, 양 문화비서관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등을 지냈다.공석인 의전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인사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비서관 인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김정은 訪中 일정 끝내... 2월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북미, 고위급 회담 물밑접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차 북중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9일 오찬을 끝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2월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운제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밑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머지않아 이를 위한 준비 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차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회담을 열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토론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곧 정리될 것”이라며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미국의 상용 조치에 대한 조율과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일시: 2019년 1월 9일 (수) 11:00 장소: 국회 본관 3층 별실1호실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전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강대인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강대인 자문위원, 문 국회의장, 심 정개특위위원장, 김종민·김성식 의원.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강대인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강대인 자문위원, 문 국회의장, 심 정개특위위원장, 김종민·김성식 의원. 뉴시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 규제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운행 중인 경유철도는 348대로,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 등에서 화물·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경유철도차량의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012톤(2015년 기준)으로 비도부 부문 미세먼지 총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하지만,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www.childfund.or.kr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노동계 “노사 의견수렴 불참” 반발... 정부 사면초가

양대 노총, 최저임금 개편 비판
“이원화 내용 2년전 이미 반대
임금 억제, 사업주 이윤만 보장”
고용부 “대화의 장 참여 유도”

노동계는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안이 발표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사 의견수렴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요식 행위’로 규정,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업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재계와 소상공인에 이어 노동계까지 반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불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일반열차 지연 보상 KTX 수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체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소비자 대다수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질보증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품질보증기간(1년)이 유지된다.

또 일반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코트라 “美·유럽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목해야”

“5G·IoT 등 신산업 수요 확대... 한국 기업, 기술 교류 강화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올해 선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9일 내놓은 시장 전망에서 올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장은 미국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타결되면서 미국 기업의 기존 공급망이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5세대 이동통신망(5G)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앞두고 첨단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다. 코트라는 이들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글로벌 기술 기업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교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코트라는 신시장에서는 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에선 가스, 철도, 전력 등 국제적 정책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지역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활용과 식품, 화장품 등 내수재가 시장 공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을 수출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투자와 기술 이전 등 호혜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했다.

코트라는 9~11일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서 자세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한다. 10일엔 부산과 대구·광주·대전에서, 11일 울산과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울산, 경남 창원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인천 내항, 주거·문화·관광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인천 내항이 한국판 ‘하펜시티’로 개발된다. 하펜시티는 독일 함부르크의 낡은 항구로 주거·레저·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 내항 허버파크 호텔에서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 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거민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 내항은 부두의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한다. 1·8부두는 상상플랫폼, 수변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지구, 2·3부두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 4·5부두는 수변형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열린 주거지구로, 4·5부두 배후 물류단지는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산업지구로 개발된다. 6·7부두는 도심형 리조트 등 관광 여가 지구로 조성한다. 올해는 1, 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 등이 시작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대한민국의 ‘실표가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소상공인 포함)

사업방식

- 여행경비 지원: 40만원 여행경비 = 20만원 근로자 + 10만원 기업 + 10만원 정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 여행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2019. 4월 ~ 2020. 2월 (차년도 사업은 2020.2월 공고 예정)

추진일정

2. 12(화) ~ 3. 8(금) 기업/근로자 참여신청

- * 참여신청 마감 후 향후 세부일정 홈페이지 공지예정
- 3월 중순 기업 담당자 대상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안내
- 3월 말
 -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홈페이지 입력
 - 기업별 가상계좌 부여 및 기업에서 일괄 입금 (근로자 부담금 및 기업지원금)
- 4월 전용 온라인몰 오픈 및 참여근로자 여행적립금 (40만원) 사용 (~2020. 2월)
- * 전용 온라인몰: 숙박, 체험/입장권, 패키지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세부내용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19. 2. 12(화) ~ 3. 8(금) 25일간
-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 신청문의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 vacation@knto.or.kr

참여혜택

- 참여근로자
 -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상품 할인 특별이벤트 제공 등
- 전체 참여기업
 - 사업 참여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
 -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기업 대표자는 참여불가)
-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가
-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참여 혜택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vacation.visitkorea.or.kr 전담지원센터 | 1670-1330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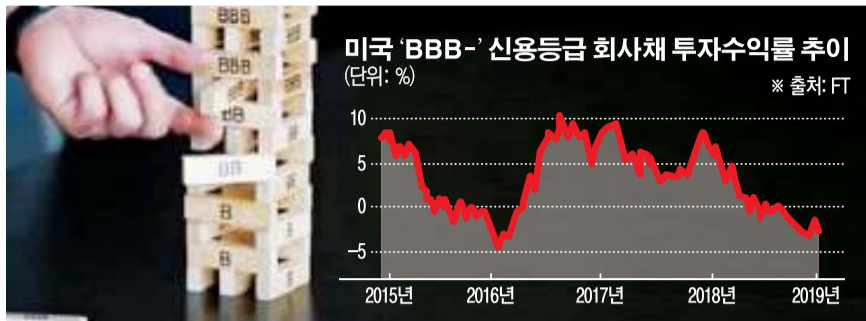
정크본드, 말 그대로 ‘쓰레기’ 되나

금융위기 이후 폭발성장했지만 경기침체 오면 가격 급락 예상 금융시스템 흔들 새 리스크 부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크본드(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시장에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할리우드 영화 '빅쇼트' 주인공 모델로 유명세를 탄 스티브 아이스먼이 최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흔들 새로운 위협요소로 '트리플B 마이너스(BBB-)' 회사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BBB-'는 투자적격 신용등급의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이후 사실상 정크본드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를 지닌 'BBB-' 채권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FT에 따르면 2007년 말 이 시장은 7500억 달러 규모였지만 현재는 약 2조 7000억 달러(약 3027조 원)로 36배나 커



졌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전반적인 세계 경제성장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대량으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소재 투자업체 누버거버먼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아이스먼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대신 그는 "월가 대형 은행들이 'BBB-' 거래 재고를 200억 달러로, 약 80% 축소할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은행들은 자본과 유동성 규제 강화에 정크본드 등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비중을 축소해왔다. 과거처럼 은행들이 채권시장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아이스먼은 "새로운 경기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이런 채권을 고통스럽게 대폭 할인해 판매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경기침체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내가 월가에 뛰어들어 이후 소비자 신용도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다"며 "그러나 침체가 일어나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 투자수익률을 종합한 'ICE뱅크 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ICE BofAML)' 지수에 따르면 'BBB-' 회사채는 2009년 초 이후 지금까지 투자수익률이

109%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채권시장 수익률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BBB-' 시장이 시들기 시작했다. 작년 이 시장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너럴일렉트릭(GE)과 알트리아 등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채권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에 그동안 시장을 뒷받침했던 긍정적 요소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퇴색하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달러에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회사채를 털 사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라흐 더블라인캐피털 설립자는 이날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이 당장 정크본드에서 나와야 한다"며 "대신 지그재그하는 2019년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재무구조를 지닌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쇼크' 남의 일? 팀 쿡 '셀프 성과급'

작년 총 1530억 쟁겨 눈총

새해 벽두부터 '실적 쇼크'로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던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쿡 CEO가 작년 9월 29일 마감한 2018 회계연도에 1200만 달러(약 134억 원)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쿡이 2011년 애플 CEO로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은 것이라고 포춘은 분석했다.

쿡의 보너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와 연동된다. 2018 회계연도에 애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지난해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 쿡 CEO는 300만 달러의 급여와 1억2100만 달러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쿡이 챙긴 총 보수는 1억3600만 달러(약 1530억 원)에 이른다.

애플의 임원 네 명도 각각 4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이들의 총 보수는 1인당 약 2650만 달러였다.

앞서 쿡은 2011년 고(故) 스티브 잡스 공동 창업자의 뒤를 이어 CEO에 취임했을 당시 막대한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애플은 이를 연간 기준으로 분할해 지급한다. 그가 매년 받는 스톡옵션은 다른 S&P500 기업 대비 애플 주식 성과에 좌우된다. 애플은 3년간 전체 S&P500 기업의 3분의 2 이상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8월 쿡 CEO에게 자사 주식 56만 주를 포상으로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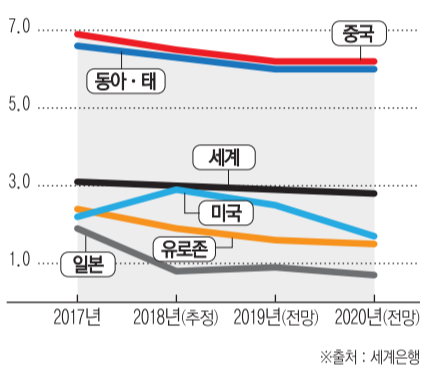
지난 회계연도에 배당금을 포함한 애플 주식 투자수익률은 49%로, S&P500 평균의 세 배에 이른다고 포춘은 전했다.

다만 올해도 쿡이 성과급을 두둑하게 챙길지는 불확실하다. 쿡은 지난 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지난해 말 마감한 2019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은 1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편 쿡 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과 관련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감정적이어서 놀라지는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애플 생태계는 이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WB "세계 경제 어둡다" 성장률 3.0→2.9% 하향

신중국 성장률 0.5%p 대폭 하향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세계 경제전망을 담은 보고서의 부제 목도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로 달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세계 경기가 계속 둔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과 2021년은 모두 2.8%로 예측했다. 지난해 6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측했지만 0.1%p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전 세계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지난해 3%로 떨어졌다가 올해부터는 2%대로 내려앉았다.

세계은행은 "국제 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동력을 잃고 있고 주요 경제권 사이의 무역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세계 경제 1·2위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을 글로벌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본 셈이다.

권역별로는 신흥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0.5%p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터키와 아르헨티나, 이란의 성장률 전망을 각각 2.4%p포인트, 3.5%p포인트, 7.7%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2017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야당인 민주당도 TV 연설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섰다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국경 안보에 꼭 필요" vs "국민 인질로 혼란 조장" 美 트럼프-민주당 '대국민 여론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여론전을 벌였다. 18일째로 접어든 연방정부 섰다운(업무정지) 사태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설은 ABC와 CNN, 폭스뉴스 등 주요 지상파와 케이블 TV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됐다. 그는 섰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콘크리트가 아닌 철제 울타리도 상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2017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당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輿野 극한대치... 최장 섰다운 눈앞 취임 후 첫 TV 연설로 지지 호소 야당 의원들 "섰다운 해제" 촉구

전달하고자 할 때마다 대국민 연설을 활용했다.

섰다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여론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야당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셈으로 대국민 연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장벽은 국경 안보에 매우 핵심적"이라며 "국경 경비대원들도 장벽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이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인신매매 등이 이뤄지며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인도주의적인 위

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에 57억 달러(약 6조3880억 원) 규모의 장벽 건설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현재 섰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이 국경 안보 예산을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연설에 야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상원 척 슈머 원내 대표도 TV 연설에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정부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실수"라며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아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섰다운을 해제하도록 촉구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섰다운의 원인이 되는 예산을 둘러싼 협의와 국경 안전 논의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SK KB 증권

물어보세요! KB증권이 또 어떤 길을 개척할지

복합점포 확대, 비대면 계좌개설로 증권의 새로운 길을 열고
베트남 진출로 해외 투자의 성공적 길을 열어가는 KB증권!

국민의 투자에 힘이 되도록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KB증권은
그 어떤 투자의 물음에도 답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211호(2018년 10월 22일~2019년 10월 1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KB 증권

‘국민銀 희망퇴직’ 미풍이나, 태풍이나 노사 ‘임금피크제’ 협상이 좌우

직급별 기준·임단협 결과 고려
만 54~56세 1000여명 추산
작년 신청자 407명·채용 600명
자발적 퇴직 수요 증가 가능성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갈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통상 12월이면 신청자 접수를 시키지만 해를 넘긴 시점에도 여전히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노사 간의 쟁점인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만 55세)에 따르면 1964년 생이 대상자이다. 하지만 직급별 기준과 향후 임단협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1963년 생부터 1965년 생까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 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고 경고성 총파업에 이어 향후 5차례의 파업도 고려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통상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직원이 대상자다. 급여를 깎아 가면서 직장에 다닐 것이냐, 아니면 웃돈

을 받고 퇴직할 것인가를 선택지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대상자 및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는 ‘만 56세’로 기존보다 1년이 늘어나는 것은 확정적이다. 원칙에는 노사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 사항이다. 부장·지점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기준 만 나이가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면, 팀장급 이하는 그해의 다음 연도 1월부터다. 이 지점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일괄적으로 1년을 연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진입 시점을 고치고자 팀장급 이하는 6개월 연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17년에는 2795명의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지만, 지난해에는 407명에 불과했다. 대상자를 보수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클 때는 대개 직급과 관계없이 연차와 나이만 충족하면 받아줬다. 지난해 600여 명의 채용 규모를

고려하면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 특성상 자발적 퇴직 수요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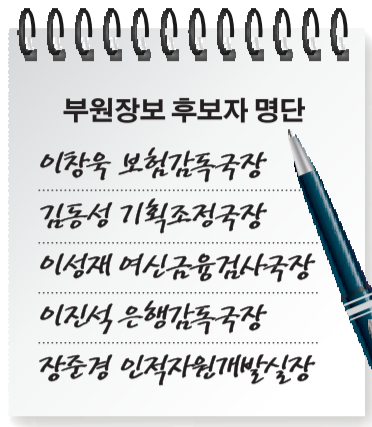
임단협이 이달 중으로 합의된다면 2월 안으로는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망퇴직자의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다”면서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이 밖에 페이밴드 폐지, LO 직군의 근무경력 인정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2차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파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노조도 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달 중으로 최종 합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금융당국 인사 ‘가시권’

금융위, 상임위원 마무리단계
금감원, 국실장 先발탁 추진



금융감독원 임원인사가 이번주를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뼈격거리던 금융당국 인사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현 금감원장이 선임 1년 만에 부원장보들의 교체 시시하면서 내부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11일 부원장보 인사에 앞서 국실장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실장 인사가 먼저 나다면 부원장보 명단에 올라간 2순위 후보자에 오른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원 내정자를 가늠해볼 수 있다.

금감원이 인사 순서를 바꿔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통상 임원급 인사 이후에 국실장급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인사 담보 상태가 계속되고, 최근 금융위와의 갈등, 일부 임원의 사표 제출 거부 등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자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업무 집중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임원급 인사는 전체 부원장보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3명 정도의 교체가 예상된다. 현재 김동성 기획조정국장,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 이진석 은행감독국장, 이창욱 보험감독국장, 장준경 인적자원개발실장 등 5명이 부원장보 후보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부원장보 후보자 5명 중 임명되지 못하는 2명은 업무에서 배제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부원장보 2순위 후보자로 올라간 국실장을 포함해 인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범위는 소폭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5%를 교체하며 대규모 물갈이를 벌인 만큼 이번에는 63년 생 이상 국장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일부 발탁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폭의 조직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팀장 자리를 15개로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상임위원(1급) 선임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1급 이동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공식 메우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국장들은 임명된 지 대부분 1년이 넘었고 외부에 파견돼 교육 중인 국장급 인사들의 복귀 시기가 맞물려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

차기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현직 국장들 중 1명이 승진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최훈 금융산업국장,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 등 행정고시 35회 출신들이 후보로 나온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3~4주 걸림에 따라 이달 말 국장급 이상 인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에는 국장급 교육연수가 있어 이달 말까지는 국장 이상급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9일 진행된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개점식에서 박원순(왼쪽에서 다섯 번째) 서울시장, 신원철(네 번째) 서울시의회 의장, 위성호(여섯 번째) 신한은행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새 금고지기’ 신한銀, 서울시청 금융센터 개점

신한은행이 서울시 신청사 지하에 ‘서울시청 금융센터’를 9일 개점했다. 앞으로 신한은행의 서울시 시금고 업무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서울시 금고의 인수를 맡았다. 이날 서울시청 금융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1호 통장 및 복지카드 전달식 등 개점행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금융센터는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최대 15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개방형 회의실과 비즈카페를 마련했다. 입구에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청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4년 만

의 시금고 은행 변경이었으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마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는 서울시의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만기구조와 납입면제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 가입 후 납입면제 제도를 선택하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

한 8가지 사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환급 특약 및 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등 6대 질병 진단 시 이미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율러 22대 특정질병수술, 다발성 13대 질병수술, 35대 생활질환수술, 치핵수술은 물론 통풍, 대상포진 등 생활 밀착형 질병도 보장한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전담간호사 방문과 건강 상담을 해주는 ‘메디케어서비스’도 운영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부채 대비 자산비율’ 6년 3개월 만에 최저

주택투자 자금 증가 영향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투자자 자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연속 내림세지만 크게 보면 2015년 2분기(4~6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자금이 몰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의 금융자산은 3770조8000억 원, 금융부채는 176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14조1000억 원 늘어난 2008조5000억 원을 보였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14배로 전분기 말(2.15배)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2012년 2분기(2.14배) 이후 6년 3개월(25분기) 만에 최저치다.

박동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주택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 당분간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의 순자금용 규모는 11조 원으로 전분기(11조 원)와 비슷했다. 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분기 중 평균 금액 13조6000억 원을 밑도는 것이다. 작년 3분기 중 주거용 건물건설에 28조1000억 원을 투자한 때문이다. 가계의 이 같은 투자는 2017년 4분기 2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유지되는 분위기다.

반면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투자를 늘렸다. 가계는 3조4000억 원을, 비금융 법인기업은 2조 원을 투자했다. 가계는 2분기 연속, 기업은 1분기 만에 투자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가계의 주식투자 규모를 의미하는 자본증권 및 투자펀드는 3조7000억 원을 기록해, 직전분기 11조5000억 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가계는 자본증권(주식) 투자를 줄이면서 채권 쪽에 자금을 예치했고, 기업도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많이 투자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기서 가계란 일반가계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SAMSUNG
삼성 휴대전화 역사



품질 위해 손해 감수한 '결단'...갤럭시 신화 결실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 ① 초일류 기업 되기까지
- ② 인텔 꺾은 '초격차' 반도체
- ③ 스마트폰 위기를 기회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 일등공신으로 휴대폰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전자 1호 휴대폰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춰 출시된 제품 모델명 'SH-100(일명 벽돌폰)'이다. 1994년 '애니콜(언제 어디서나 통화가능하다는 의미)'이라는 브랜드를 단 'SH-770'을 출시하며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이 본격화됐다. 휴대폰이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삼성전자 위상도 함께 올라갔다. 시대 변화에 맞춰 삼성전자는 '애니콜'과 '갤럭시S' 시리즈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글로벌 1등 스마트폰 업체가 됐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 등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삼성전자 DNA도 한몫했다.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만의 DNA'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운동장. 2000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품

1995년 불량 휴대폰 화형식 애니콜 '국내 점유율 1위' 올려 갤럭시7 배터리 발화 땀 단종 3조 손실 안았지만 신뢰 구축

질 확보'라는 머리띠를 두른 비장한 모습으로 집결했다. 운동장 한복판에는 15만 대에 달하는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0여 명의 직원이 휴대폰에 인장사 정없이 해머질을 해댔다. 박살 난 제품들에 불까지 붙었다. 모두 500억 원어치의 휴대폰이 한 줌 재가 됐다.

당시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은 애써 만든 제품이 불구덩이 속에서 타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왈카스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 성장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애니콜 화형식' 장면이다. 이기태 삼성전자 회장의 불호령에 불량 휴대폰들이 공개 화형에 처해진 것이다. 애니콜 화형식은 삼성전자를 확 바꿔 놓았다. 4개월이 지난 그해 8월 애니콜은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로 국내 시장 1위에 등극했다.

1997년 5월 무선 분야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며 삼성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2년에는



1995년 삼성전자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불량 휴대폰 화형식이 열렸다. 당시 임직원들이 해머로 불량 무선전화기 제품을 내리치고 있다. 아래는 배터리 발화 사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이 2016년 10월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회수된 모습.

'SGH-T100(일명 이견희폰)'으로 '텐셀 리언시대(1000만 대 판매)'를 처음으로 열었다.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시장이 급격히 이동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과 2009년 아심작 '옵티아'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고 추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철저부심한 삼성전자는 2010년 구글과 협력한 '갤럭시S'를 선보였고, 7개월 만에 1000만 대

를 팔았다. 후속작 '갤럭시S2'와 '갤럭시S3' 등도 대성공을 거뒀다. 마침내 2012년 삼성전자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겼던 노키아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17년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신제품에 배터리 발화가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으며 단종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듬해 갤럭시S8를 성공적으로 출시, 부활의 날개를 폈다.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최대 위기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향후 스마트폰 업황이 밝지만은 않다. 최근 10년 가까이 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1조 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삼성전자 IM부문 분기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2016년 3분기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1000억 원에 그쳤을 때를 빼면 처음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과 위기극복 DNA를 앞세워 뉴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한다는 각오를 내보냈다. 삼성전자가 관계자는 "폴더블폰과 5G(5세대 이동통신) 모델 출시 등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중저가 하드웨어 스펙 강화 등 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그땐 기다렸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운 'GBC'

현대차그룹 삼성동 신사옥 건설안 5년 만에 정부 승인 건립비 3.7조...실적부진·무역분쟁 등 타이밍 안 좋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안이 이달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분위원회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전투 비행 방해 △인구 분산 걸림돌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3차례나 고배를 마셔야 했으며 봉은사 일조권 침해 논란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승인은 여러 파고를 극복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현대차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GBC 사업은, 향후 서울시 건축허가, 굴토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GBC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매입비용 10조5500억 원)에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짓는 대규모 신사옥이지만 건립비용 3조7000억 원과 그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우선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용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이 수년에 걸쳐 함께 지불하기에 큰 부담은 없다. 다만 영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GBC사업은 현대차그룹의 재무적 상황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차 순이익 전망치는 3420억 원, 2020년 3579억 원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2015년(7609억 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5년간 연간 판매 실적을 보면, 2014~2015년까지만 해도 연간 800만 대가 넘었지만, 2016년

788만 대, 2017년 725만 대 등 판매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역시 11월 누적 기준 675만 대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올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0% 감소, 글로벌 판매는 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비우호적인 환경은 현대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동차 25%관세 부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문제도 걸려 있다. 통상임금 1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기아차는 10년간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소급분 약 4조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GBC 준공 이후 '공실률'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서울오피스 공실률은 평균 9%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GBC 착공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착공 지연으로 매년 지불해야 했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자손실 및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열사 15곳이 GBC에 모두 입주할 경우 기존에 각각 지불해야 했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중국·유럽 車에 '삼성 콕핏' 달린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신차 탑재

이르면 올 하반기에 중국과 유럽의 일부 완성차 업체의 신차에 삼성전자의 차량 제어 디지털 기기인 '디지털 콕핏'이 탑재될 전망이다. 디지털 콕핏은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각종 장치 제어와 내비게이션, 라디오 같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결합한 전자용 조종석의 개념이다.

박종환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장 부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디지털 콕핏 서비스를 중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하는 데 성공했

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중국 업체의 경우 조금 빠를 거 같은데 우리 디지털 콕핏이 실제 상용차에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기업은 지난해 CES에서 디지털콕핏을 보고 주문을 했고 이어 지난 여름에는 유럽 업체 한 곳으로부터도 수주를 했다고 박 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 업체에 적용된 제품은 다소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유럽 업체는 2022년쯤 디지털 콕핏이 적용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이마트 최근 5년간 '고용 확대' 1위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종업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대 규모기업집단 공시자료를 토대로 2012~2017년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명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1만4246명)였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 종업원 수는 2012년 1만6736명

에서 2017년 3만982명으로 5년 동안 85% 증가했다. 분석 대상에는 정규직과 기간직 등이 포함되며 인수합병으로 늘어난 사례도 포함된다. 이마트에 이어 신세계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의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8007명), 현대자동차(7488명), CJ CGV(5646명), 농협파트너스(5270명)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2014~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830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콕핏’ 탄 SKT 고동진(왼쪽) 삼성전자 IT모바일 부문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에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개발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종석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자율주행차·5G 협업 논의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에서 5G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하 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2019’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 등 완성차 업체의 부스를 방문해 5G 서비스를 통한 자율주행차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 부회장은 자율주행에서 모빌리티와의 연계, 5G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함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 등을 살폈다. 혼다 전시 부스를 찾은 하 부회장은 이동수단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세이프 스웜(safe Swarm)’을 체험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둥근 코린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에 탑재해 자율주행차 내에서 학습, 운동, 업무 소憩 등 다양한 콘텐츠를 둘러봤다. 하 부회장은 “5G시대의 자동차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동차의 기능이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한양대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5G를 접목하여 장애물 회피, 경로 변경에 운행 및 주차하는 시나리오를 실증했다. 올해는 서울 강변북로, 상암DMC 포함 선별된 테스트베드에서 LG유플러스의 5G 환경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다이나믹 정밀지도의 정확성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콘셉트카 엠비전.

지붕에 달면 자율주행차 변신 현대모비스 탈부착 키트 공개

현대모비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19’에서 미래 도심 자율주행 컨셉 엠비전(M.VISION)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레벨 4(운전자의 간섭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한 자율주행) 이상의 미래차 컨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공개한 엠비전의 핵심은 라이더 센서 4개와 다가음 카메라 센서 5개를 한 데 모은 ‘자율주행 키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차량 지붕에 얹는 방식이라 차량 크기나 디자인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해 범용성이 높고, 설계 원가 절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키트를 통해 센싱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메라 센서나 라이더 센서의 특성상 높은 곳에 장착할수록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키트에 더해 레이더 센서 5개, 초음파 센서 12개를 차량 하단부에 추가로 장착했다. 또 엠비전의 경우 전후좌우에 장착된 램프를 통해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와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야간주행 시 노면을 밝히는 대표적 안전부품인 램프를 차량과 외부에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경쟁사에서 배운다” CEO들 열공 모드



김기남 삼성 부회장, 미래 車 탐방 조성진 LG부회장, 하이얼 부스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삼성관 관심 웃음 속 칼 품고 경쟁사 동향 파악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총집결한 국내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앞다투어 국내·외 경쟁사 전시부스를 방문하며 ‘열공(열심히 공부한다는 준말)’에 빠졌다. 임원들은 경쟁사 또는 협력사의 전시장을 찾아 미소를 지었지만 경쟁사 동향 파악에 집중하는 ‘소리장도(笑裏藏刀)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의 행보를 보였다.

8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한 글로벌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 참여한 삼성전자·LG전자·네이버·SK·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전시장에는 각 기업 최고 위 임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LG전자 부스를 먼저 찾아 ‘올레드 플렉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여 제작한 초대형 ‘올레드 콕핏’을 관람했다. 화면을 말거나 펼 수 있는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터키 가전기업 베스텔(Vestel), 중국기업 하이얼(Haier), 하이센(스Hisense) 등도 둘러봤다. 특히, 하이얼의 주방가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이얼은 주방후드 전면에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조 부회장은 임원들과 이 제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쑤닝이거우 조사에 따르면 주방가전제품 소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우허우(85년 이후 출생자)는 주방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스마트 기능, 브랜드, 디자인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중국 주방가전 제품 시장 규모가 5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했다. 박 사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전시관을 꼼꼼히 둘러본 뒤 자동차 모형 앞 좌석에 나란히 착석해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개발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종석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체험했다. 올해 처음으로 CES에 참여한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삼성전자 전시장을 찾아 QLED 8K TV 98형과 마이크로 LED TV 신제품 등을 살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이날 오후 벤처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각각 모여 있는 전시관을 돌아보며 신기술과 제품을 꼼꼼하게 챙겨봤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이완재 SKC 사장 등과 함께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하이닉스·SKC 등 SK 주요 계열사들이 CES에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 부스를 방문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현대기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에 들러 오토모티브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SK하이닉스 출신의 박성욱 SK 수펙스추진협의회 ICT 위원장도 SK 공동부스를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SK부스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품조달 및 품질담당 윌코 스타크(Wilko Stark)이사와 회사 관계자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벤츠는 SK이노베이션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김영섭 LG CNS 사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은 LG전자 전시장을 둘러봤다. SK텔레콤 박 사장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SK텔레콤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세운 공동부스에 함께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제네시스 G80 앞유리에 ‘속도 줄이세요↖’ 증강현실 내비

현대기아차 세계 최초 장착 2020년 양산차 적용 목표

현대·기아차와 스위스 기업 웨이레이가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제네시스 G80를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공개된 이 차량에 탑재된 홀로그래프 증강현실 기술은 △갈간내 △목적지점 표시 △현재 속도 등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차선이탈 경고 △앞차 충돌위험 경고 등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차는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 입체 영상으로 실도로 위에 보다 정확한 운행 정보를 전달한다. 운전자는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생생한 홀로그래프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차량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운전석 가상 이미지.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속도에 맞춰 이동 방향을 정밀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LCD 화면을 통해 반사된 영상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기존 헤드업디스플레이(HUD)와 달리 영상용

레이저를 전면 유리에 직접 투영하기 때문에 유리창 전체에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웨이레이의 부품이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 설계 조

건에 맞게 홀로그래프 HUD 표시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했으며, 홀로그래프 영상이 운전자의 시야에 최적화돼 표시되도록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람 및 사물, 버스나 자전거 전용도로, 건물목 등 홀로그래프 증강현실로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후측방 경고시스템, 고속도로주행보조(HDA) 등 고도화된 ADAS 기능들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호등, 주변 차량 정보 뿐 아니라 도로정보, 주변정보, 날씨 등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웨이레이와 협업해 개발한 홀로그래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양산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이제는 실시간이다!

증권사 실시간 수급 솔루션 **THE HINT**

‘더 힌트’는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추적해
종목을 포착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수급차트

종목진단

누적금액

누적강도

시장분석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기존 수수료율(0.014~0.5%) + 0.09%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당사의 공식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Hint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증권빅데이터투자연구소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수익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0473호(2018.01.25~2019.01.24) CC브랜드-180124-450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식물축 자세로… 中企 혁신의 해 될 것”

〈中石沒鐵：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사 현안으로 고민에 빠진 중소기업계가 황금 돼지의 해 신년인사회를 맞아 모처럼 만에 웃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이례적으로 노동계까지 참여하며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을 달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규제 폐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조성 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식물축(中石沒鐵)’의 자세로 임하자”며

“스마트공장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 통합 협업으로 위기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

이낙연 총리·손경식 경총 회장 정·재계 주요인사 700여명 찾아 노동계 한노총 위원장도 첫 참석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한 해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날 세계 15위의 국가 경쟁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벤처기업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혁신과 협업,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정·재계 및 노동계 주요 인사들이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날 행사에서 박인학 (주)광스틸 대표이사과 유성환 (주)호신테크 상무이사는 신년을 맞아 새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청년 인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에서는 이날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초로 김

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 동호회 ‘라무체’가 애국가를 선도하면서 노사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매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우주개발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

법률체계 손질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 촉진 우주산업 규모 2021년 3조7000억으로 확대

정부가 앞으로 우주기술개발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내외 관련 시장 확대와 우주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등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산업전략’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

시장 성장·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주산업 규모를 2021년까지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는 2016년(2조7000억 원)보다 5년 만에 1조 원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발사체 등 기기 제작을 산업체가 주

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을 위해 위성 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위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상도 4m로 묶여 있는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도 올해 추진한다.

또 우주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

배상법 등 법률 체계를 정비,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미확보 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재정립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팔로모 매트리스’ 사진제공 쿠쿠홈시스

쿠쿠 매트리스 렌탈상품 홈쇼핑 매출 100억 돌파

지난해보다 66% 늘어

쿠쿠홈시스의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가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9일 쿠쿠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상품의 홈쇼핑 매출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매출액인 60억 원 대비 66.6% 성장한 규모다.

일명 ‘이회재 쌍둥이 침대’로도 유명한 5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브랜드 ‘팔로모 매트리스’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쿠쿠홈시스는 2016년 팔로모 매트리스의 유통,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쿠쿠홈시스가 선보이고 있는 팔로모 매트리스는 지난해 2018년형의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이탈리아 직수입 블루텍스, 신소재인 카멜레온 폼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해 왔다. 이탈리아 직수입 블루텍스 매트리스는 온도를 유지하는 정성인 정온성을 가지고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한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쿠쿠는 팔로모 매트리스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동안 렌탈 기업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온 쿠쿠의 서비스와 팔로모 브랜드의 우수한 제품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 지속적해서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지민 기자 aaaa3469@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16일 방북 희망”

폐쇄 이후 7번째 신청

“개성공단 방북 요청 일정은 16일 하루만 지정했고 인원은 총 179명입니다. 정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인원과 일정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개성공단 내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북 요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뒤 약 3년간 이번까지 총 7번째다. 6번에 걸쳐 방북 신청은 거부 혹은 무기한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을 재개해 준다는 말만 믿고 지난 3년간 희망

고문을 견뎠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방북안에 따르면 방북 규모는 일단 ‘1사 1인’ 원칙으로 모두 179명이다. 허가가 나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위해 방북 인원을 늘려달라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방북이 허용될 경우 방북 일정은 사흘가량이 적당하고, 방북 인원 역시 각사 기술자 등을 포함해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에 기업 생존을 위한 정당한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코웨이, CES서 수면솔루션 계획 발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뇌파분석 통한 수면개선 연구

코웨이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과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Show Your Dream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웨이는 정재승 교수와 뇌파를 이용한 수면 단계 분석 및 개인별 최적화된 수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코웨이는 이 협약의 일환으로 Show Your Dreams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Show Your Dreams 프로젝트는 인이 어 타입의 뇌파 분석기로 귀의 외이도에서 측정된 뇌파를 이용해 자는 동안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렘 수면 단계에서 꾸 꿈을 현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코웨이는 “Show Your Dreams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꿈의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증진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면 중 뇌파를 감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전

망”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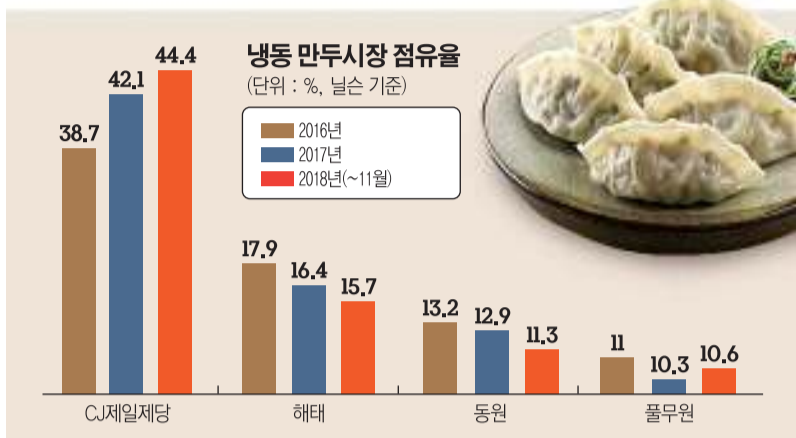
코웨이는 이번 CES에서 정재승 교수와 함께 개발한 인이어(in-ear) 타입 뇌파 분석기를 프로토타입으로 선보였으며 향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 베드’도 선보였다. 스마트 베드는 사용자의 체형·몸의 부분별 압력을 감지해 매트리스 형태를 자동으로 변환시키며 취침 시 스마트폰을 침대 헤드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기상 시간이 되면 침대 하부 조명이 서서히 점등되고, 사용자의 상체를 일으켜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기능도 있다.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기에 수면의 질은 결국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수면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식지 않는 만두시장 CJ '세계 1위' 야망



CJ제일제당이 지난해 국내외 만두 시장 매출을 20%이상 키우면서 만두 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만두시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20%이상 늘어난 6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 등 대륙별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만두 소비 확대에 집중된 결과 글로벌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매출 3420억 원은 3년 전인 2015년의 1350억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글로벌

하 모두의만두) 즉석식 상품을 이날 내놨다. GS25 측은 "만두 구매 고객이 2017년 전년 대비 22.8%, 2018년 26.1%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만두와 맥주와 함께 즐기는 '만백족'을 겨냥해 모두의만두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냉동만두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기준 44.4%의 점유율을 기록, 1위를 지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38.7%, 2017년 42.1%로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위인 해태제과의 점유율이 15.7%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동원F&B와 풀무원이 각각 11.3%, 10.6% 순이다(낱손 집계).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매출비중 50% 훌쩍 프리미엄 늘고 맛 다변화...2020년 세계 석권 목표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 매출을 1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만두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케이만두(K-Mandu) 열풍을 이어가며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만두 사업을 강화하면서 국내 만두 시장도 프리미엄 만두 제품 출시가 늘고 맛을 다변화한 이색 만두가 속속 등장하는 등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GS25는 만두를 구매할 고객 중 30%가 맥주도 함께 구매하는 고객 판매 데이터에 따라 도시락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어스 모두의만두' (이

배문군 CJ제일제당 브랜드 매니저는 "CJ제일제당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현지만두제품을 국내에 선보이는 한편 외식형, 스낵형, 편의형 등 미래형 제품을 개발해 냉동 만두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2위인 해태제과는 '프리미엄 건강 만두' 콘셉트의 교자만두 신제품을 선보이며 교자만두 시장 1위 탈환을 꾀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11월 고급 식재료인 담양 죽순을 포함한 국산 채소로 만든 '소담교자를 출시했다. 동원F&B는 이색 '해물만두'로 고기소와 감자소 일색이던 만두 시장에서 차별화를 노린다. '개성왕새우만두'는 최근까지 2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840만개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설 선물 '프리미엄 돼지고기 세트' 어떠세요 신세계백화점은 설 본판매 기간 황금돼지 해를 기념해 프리미엄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육질과 마블링이 뛰어난 '듀록'이라는 품종으로 스테이크·로스용으로 적합하다. 선물세트는 삼겹살과 목살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10만 원이다. 사진제공 신세계

돼지고기 세트부터 클래식 턴테이블·장기렌터카까지 유통가, 톡톡 튀는 '이색 설 선물'

롯데백화점, 프리미엄급 강화 현대百貨, 유명 음식점과 협업 CU, 안마기 등 건강상품 내놓고 GS25 '에어프라이어' 등 판매도

설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유통업체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이고 있다. 나홀로족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이 늘었고, 유명 음식점과 협업한 먹거리를 비롯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선물세트도 출시됐다. 황금돼지 해를 맞아 돼지고기 선물세트도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8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이색 선물을 앞세워 명절 수요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그동안 명절 선물로는 판매한 적 없던 돼지고기 선물세트로 처음 내놨다. 또 1인 가구를 겨냥한 혼술 안주 세트나 소용량 전통주 세트도 선보였다. 감정을 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조선호텔 승건지 김치 세트'도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돼지고기, 김치 등을 설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색 명절 선물과 한우 등 전통적인 선물 물량을 늘려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초고가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프리미엄급 선물을 강화했다.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L-NO.9 세트(6.5kg, 100세트)'를 135



세븐일레논의 '설 선물 세트'. 세븐일레논은 미니의류건조기, 에스프레소 머신 등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사진제공 세븐일레논

만 원에,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황제(2.7kg/10미)'를 250만 원에, 보르도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2005년 빈티지 와인을 담은 'KY 세기의 빈티지 와인세트 2호'를 250만 원에 준비했다. 16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가는 현대백화점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계방식당' 요리법으로 만든 간장 전복, 포천 이동폭포 갈비와 협업한 갈비세트 등 유명 맛집과 협업한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지역 특산물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장류로 맛을 낸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15일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소형가전, 반려동물 선물세트 등 이색 선물을 대거 선보인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사과·배 세트와 과일 껍질로 만든 친환경 세제 세트, 대나무로 만든 칫솔, 태양광 충전기 등 '에코 프렌들리' 상품도 선물세트로 판매한다. 편의점 CU(씨유)는 지난해 설 선물 관련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 건강 관련 상품

에 초점을 맞췄다. 슈퍼푸드부터 안마기까지 총 300여 종의 인기 선물을 준비했다. 또 황금돼지해를 맞아 스페인 돼지고기 이베리코 세트 등 돼지고기 선물을 대폭 확대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해 화제가 됐던 송이버섯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GS25는 클래식한 본체를 지닌 턴테이블과 손금 북돼지, 안마의자, 대형가전 등 520여 종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이 외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수요층을 겨냥해 스팸 모양을 본뜬 큰 케이스에 스팸과 핫반을 채워 넣은 '콘셉트 자이언트 스팸'을 비롯해 액션캠과 드론, 닌텐도 스위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한다. 세븐일레논은 가전제품에 무게 중심을 두고 미니의류건조기, 에스프레소 머신 등을 판매 중이다. 미니스톱에서는 장기렌터카 서비스 상품을 비롯해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견 유모차, 고양이 놀이 세트 등을 설 선물로 선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건강·외모에 아낌없이 지갑여는 '어번 그라니'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유통업체가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중·장년층(만 40~64세에 해당하는 내국인) 인구는 1966만 4000명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비중이 높을뿐 아니라 이들이 자신을 가꾸는 건강한 삶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50~60대 여성을 뜻하는 '어번 그라니(Urban Granny)'는 액티브 시니어 중에서도 도회적이고 세련된 중장년층을 뜻한다. 한국리서치가 50~60세대 32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9.5%가 젊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팩토리얼이 최근 선보인 중년 여성의 요실금 치료를 돕는 가정용 의료기기 '이지케이(easy-K)'. 사진제공 팩토리얼



실제로 G마켓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0~60세대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마스크팩이었다. 또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50~60세대가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는 밸리·재즈·살사 댄스북, 과 건강 검진 기기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유통업체는 중·장년층을 위한 기능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GR8(지알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시트의 온도 감지 기능으로 피부 온도가 높을 때 각기

유통업체, 기능성 제품 출시 잇따라 작년 마스크팩·건강검진기구 인기 5060 패션 특별전 이벤트도 열어

다른 색깔의 별 모양이 나타나는 '올데이 마스크팩'을 선보였다. 콜라겐의 합성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열'을 빼앗아 걱정 피부 온도인 31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팩토리얼은 중년 여성에게 자주 발병하는 요실금 치료를 돕는 가정용 의료기기 '이지케이(easy-K)'를 선보였다. 이지케이

이는 인체에 무해한 전기 자극(저주파 펄스)이 골반저근을 자동으로 수축, 이완시켜 정확한 케겔운동을 돕는 기기다. 어번 그라니를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 50~60 세대만을 위한 패션 특별전을 마련했고,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니어 고객의 쇼핑을 돕기 위해 전담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현대프리미엄아웃렛 김포점은 지난해 8월 신관을 증축하며 레저·골프·프리미엄 등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100여 개 브랜드를 모은 전문관을 선보였다. 현대아웃렛 관계자는 "실제로 신관 매출의 64.9%가 40~50대 고객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암울한 '어닝시즌'... 믿을 건 '실적株'

삼성·LG전자 4분기 '실적쇼크'
상장사 상반기까지 실적부진
녹십자·한미약품 영업익 급증 전망

4분기 어닝시즌이 본격 개막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어닝시즌의 개막을 알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기업이익이 감익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투자전략으로는 실적이 차별화된 개별종목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242개 국내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39조 2268억 원이다. 3개월 전(48조 7896억 원)과 1개월 전(46조 154억 원)보

2018년 4분기 영업이익 증가 종목
(단위 : 억 원)

종목명	2018년 4분기 추정치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녹십자	3,412	88	55	4.6	7435.5	흑전
코스메카코리아	971	58	52	117.9	1195.9	494.6
한미약품	2,522	116	104	8.4	722.9	10.5
삼성엔지니어링	14,646	481	320	15.6	605.5	흑전
도이치모터스	2,863	173	89	2.0	557.4	흑전
한섬	4,152	333	227	3.5	448.7	78.2
대한해운	3,510	385	237	-21.7	443.7	52.5
에코프로	2,013	180		94.7	390.7	-
스튜디오드래곤	1,063	164	122	47.9	372.4	509.6
에스엠	2,018	176	131	41.2	370.1	흑전

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통상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면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NH투자증권이 지난 5년간 4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망치 대비 각각 15.1%, 25.1% 하회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 감익 추세가 4분기를 넘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

점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장사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0.8%,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높아진 어닝 불확실성을 활용한 종목별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증권사들 분석에 따르면 4분기 영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날 것으로

2018년 4분기 영업이익 감소 종목
(단위 : 억 원)

종목명	2018년 4분기 추정치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S-에	68,722	2,068	2,168	18.2	-44.0	-44.0
대한유화	6,136	565	439	3.1	-45.7	-42.3
세아베스틸	8,201	197	99	6.9	-48.8	-59.1
휴젤	448	128	109	-10.6	-49.0	-47.3
한화케미칼	22,932	600	1,038	-2.5	-52.3	1071.3
아모텍	612	34	22	-6.1	-53.3	73.4
롯데케미칼	38,313	3,151	2,714	-5.0	-56.0	-45.4
SK이노베이션	139,914	3,366	2,190	10.8	-60.6	-26.2
하나투어	2,045	27	23	100.6	-82.7	-64.7
OCI	7,358	72	-135	-13.7	-92.9	적전

※출처 : 에프앤가이드

예상되는 기업은 150곳(특자치환기업, 적자축소기업 제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다. 녹십자가 올해 4분기 전년 대비 무려 7435.5% 늘어난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도 같은 기간 722.9% 증가한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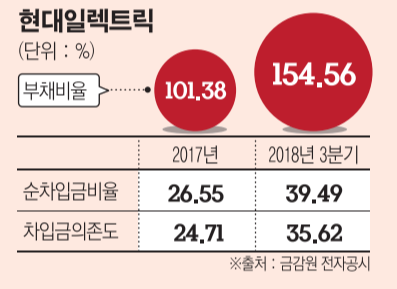
억8500만 달러(약 8823억원) 규모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유한양행도 4분기 268억 원(90.2%)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코스메카코리아(1195.9%), 코스맥스(137.6%), 한국콜마(128.3%) 등 화장품 주들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텍 역시 증권가에서 실적을 높게 전망하는 기업들이다. 반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60곳으로 OCI, S-Oil, 대한유화, 세아베스틸,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언제까지 실적 전망이 하향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이익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4분기는 물론 올해 실적 방향성을 살펴보고 종목별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일렉트릭, 채무보증에 회사채까지 '첩첩산중'

현재 채무보증 잔액 총 3158억
해외 법인 순손실에 회수 불투명
내달 회사채 상환 앞둔 추가 발행
부채비율 154%로 50%P 증가



현대일렉트릭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채 상환 부담과 채무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7일 자회사인 중국 양중법인을 상대로 335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양중법인은 2017년 적자 전환해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 59억5100만 원을 기록했다.

현재 현대일렉트릭의 채무보증 잔액은 총 3158억8416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78%에 달하는 2471억 여 원이 순손실을 겪는 법인들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은 모두 적자 상태. 보증액 상당수가 손실을 기록하는 법인으로 흘러가는 만

큼 회수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3분기 반덤핑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215명의 퇴직자를 정리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249억 원의 비용이 들었고, 미국 반덤핑 관세 비용으로는 167억 원이 소모됐다. 그 결과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764억9484만 원, 순손실은 807억4267만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6일 상환을 앞두고 있는 회사채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154.56%를 기록해 전기

말 대비 5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순차입금비율은 26.55%에서 39.49%로 높아졌으며 차입금 의존도 역시 24.71%에서 35.62%로 상승했다.

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분할 당시 1929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4728억 원으로 증가하는 점은 유동성 위험에 있어 긍정적이다. 현대일렉트릭 측은 "차입금 및 자본 조달을 통해 마련된 현금 보유량은 그동안 회사가 투자 지출 등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충족했다"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일은 2021년 9월 17일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지주도 현대일렉트릭의 무상증자 및 지분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NICE신용평가 관계자는 "현대일렉트릭의 지난 3분기 손실 발생이 회사 신용등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손실 발생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투자 부담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연간 수익률 상위 10개 ETF 종목 (2018년 기준)

순위	종목명	기초지수명	수익률(%)
1	ARIRANG 200선물인버스2X	코스피 200 선물지수	43.01
2	TIGER 200선물인버스2X	코스피 200 선물지수	42.48
3	KBSTAR 200선물인버스2X	코스피 200 선물지수	42.35
4	KODEX 200선물인버스2X	코스피 200 선물지수	42.03
5	KOEF 200선물인버스2X	코스피 200 선물지수	41.01
6	TIGER 차이나CSI300인버스(합성)	CSI 300 Index	24.78
7	KINDEX 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지수	21.54
8	KODEX 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지수	21.37
9	TIGER 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지수	21.3
10	KBSTAR 200선물인버스	코스피 200 선물지수	21.02

※출처 : 한국거래소

ETF 순자산 40兆 돌파

일평균 거래대금 1조5000억
수익률 상위권 모두 '인버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작년 순자산 40조 원을 돌파하며 인기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증시 하락 장세가 이어지면 수익률 상위권 명단은 인버스 ETF가 모조리 휩쓸었다.

9일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작년 말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41조 원으로 지난 1년간 10조1000억 원이 순유입됐다.

투자처로 ETF 인기가 늘면서 거래량도 급증했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 5000억 원으로 전년의 1.5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상장 종목은 95개로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전체 ETF 종목은 413개로 99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증시 전체 시가총액에서 ETF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6%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 성적을 들여다보면 작년 증시 부진 여파에 추가 하락에 베풀리는 인버스 ETF 상품이 연간 수익률 상위 명단을 차지했다.

작년 연간 수익률 상위 10종목은 모두 인버스 ETF였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역으로 2배로 추종하는 'ARIRANG 200 선물인버스2X'가 43.01%로 1등을 차지했다. 그 뒤를 'TIGER 200선물인버스2X' (42.48%), 'KBSTAR 200선물인버스2X' (42.35%) 순으로 따랐다.

코스닥 투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코스닥 150 ETF 인기도 지속됐다. 코스닥 150 ETF 7종목이 신규 상장됐으며 코스닥 150 ETF에만 2조 원가량이 순유입됐다.

차명영 기자 blooming@

아나패스 오너, 관계사 '고금리' 자금대여 논란

지씨티리써치 8.5% 금리 77억 대출
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두 배 ↑
실적악화로 아나패스 60억 못갚아
대손충당금 설정, 지분법손실 처리

코스닥 상장사 아나패스와 오너가 관계사와의 자금 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배정에 관심이 쏠린다. 아나패스의 대여금은 직접적인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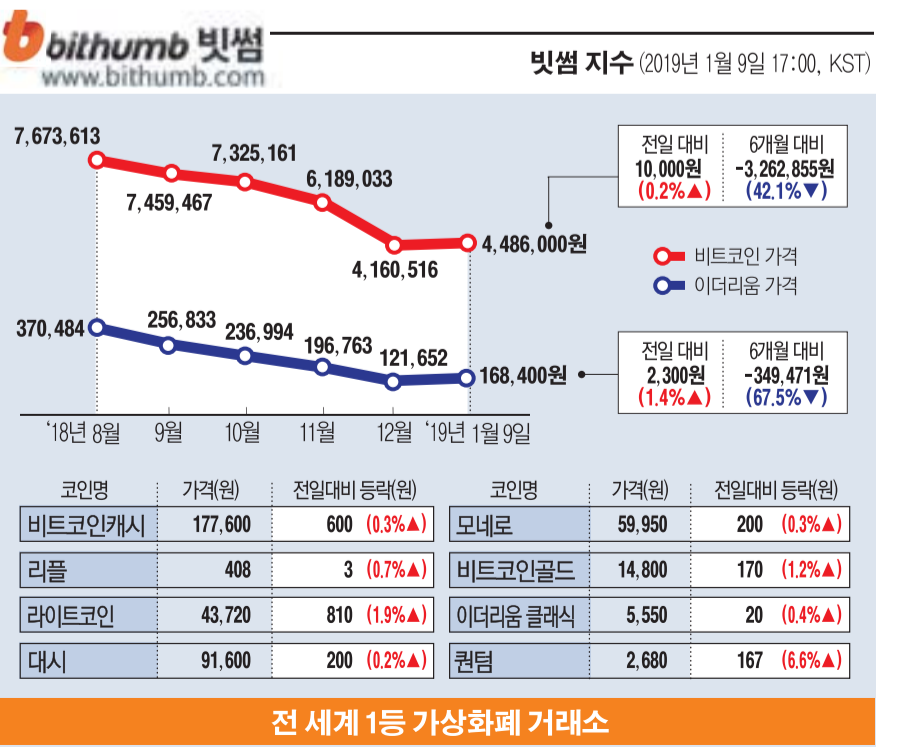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나패스는 최근 관계기업인 지씨티리써치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92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나패스가 제공한 담보는 총 200억2000만 원 규모다.

지씨티리써치는 아나패스의 관계기업인 GCT세미컨덕터의 100% 자회사로 전자 부품과 시스템 연구개발, 설계 용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7년 기준 매출은 144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순손실 48억 원을 기록했는데, 누적된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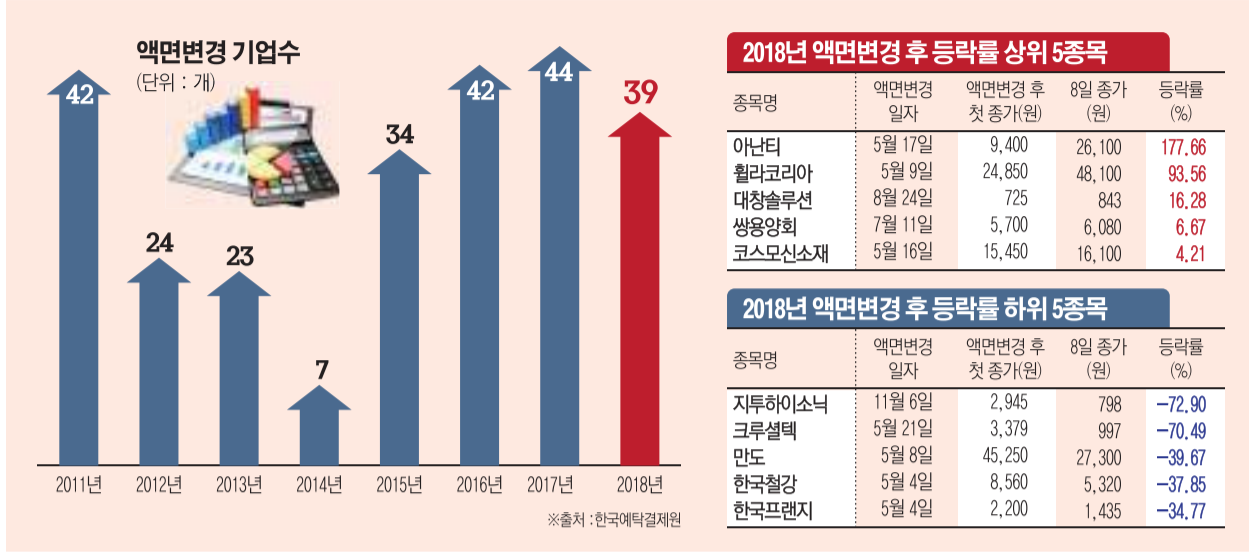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씨티리써치의 차입금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아나패스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2%대 중반의 금리로 각각 92억 원, 90억 원을 차입하고 있다. 또 아나패스에서 60억 원을 5.5%의 금리로 빌렸다. 반면 아나패스의 최대주인 이정호 대표이사로부터는 8.5%의 높은 금리로 77억 원을 대출했다. 아나패스로부터 빌린 차입금 금리보다 3%포인트 높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

로 자금을 대여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 이자율 4.6%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해당 금리는 법인세법 개정 이전인 2009~2011년 적용됐던 이자율과 동일하다. 지씨티리써치는 이 대표로부터 빌린 77억 원 중 60억7000만 원을 상환해 남은 차입금은 16억3000만 원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금전 거래를 통해 2억6200만여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한편 지씨티리써치가 빌려 간 차입금은 아나패스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지씨티리써치가 아나패스에서 빌린 60억 원의 차입금은 회수 불능 추산액, 즉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됐으며 이를 미반영된 지분법 손실로 반영해 손실 처리했다. 이런 이유로 아나패스는 2017년 5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과 25억 원가량의 영업외수익을 올렸음에도 순이익 규모가 6억7800만 원에 불과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액면분할=주가상승' 옛말?



2018년 액면변경 후 등락률 상위 5종목

종목명	액면변경 일자	액면변경 후 첫 증가(원)	8일 증가 (원)	등락률 (%)
아난티	5월 17일	9,400	26,100	177.66
힐라코리아	5월 9일	24,850	48,100	93.56
대창솔루션	8월 24일	725	843	16.28
쌍용양회	7월 11일	5,700	6,080	6.67
코스모신소재	5월 16일	15,450	16,100	4.21

2018년 액면변경 후 등락률 하위 5종목

종목명	액면변경 일자	액면변경 후 첫 증가(원)	8일 증가 (원)	등락률 (%)
지투하이소닉	11월 6일	2,945	798	-72.90
크루셜텍	5월 21일	3,379	997	-70.49
만도	5월 8일	45,250	27,300	-39.67
한국철강	5월 4일	8,560	5,320	-37.85
한국프랜지	5월 4일	2,200	1,435	-34.77

기업들의 주식 액면 변경 건수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액면 변경은 거래량이 조절되고 주식 가치가 제고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는 조정장세 속에 관련 효과는 물론, 기업들의 액면변경 건수도 감소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중 액면을 변경한 기업은 총 39개로 전년(44개)보다 11.4% 줄었다. 30개 사가 액면분할을, 9개 사는 액면병합을 실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15개사로 전년(17사) 대비 11.8%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4개사로 전년(27사)보다 11.1% 줄었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액면병합은 일정한 비율로 액면가가 적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이다. 액면분할은 발행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액면병합은 과도한 유동주식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액면변경은 자본의 변동이 없어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지투하이소닉·크루셜텍 등 대부분 주가 두자릿수 급락 삼성전자·네이버도 하락세 주가 오른 기업은 5곳 불과

지난해 액면변경 신청 기업 39개사...전년보다 11.4% ↓

그러나 지난해 액면 변경을 통해 주가 상승 덕을 본 회사는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성지건설을 제외한 38개사 중 액면 변경 후 첫 증가 기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오른 기업은 5개에 불과했다.

액면전환 직후 증가 대비 8일 기준 주가가 오른 기업은 △아난티(177.66%) △힐라코리아(93.56%) △대창솔루션(16.28%) △쌍용양회(6.67%) △코스모신소재(4.21%) 뿐이다.

반면 △지투하이소닉(-72.90%) △

크루셜텍(-70.49%) △만도(-36.97%) △한국철강(-37.85%) △한국프랜지(-34.77%) △해덕파워웨이(-34.13%) △넷게임즈(-33.24%) △모트렉스(-33.02%) △글로벌텍스프리(-30.40%) △인콘(-30.38%) 등 대부분 기업들은 액면변경 후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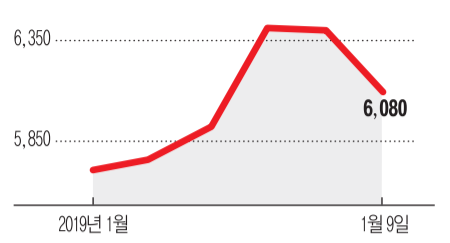
지난해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분할 직후 증가 대비 8일 기준 26.59%나 주가가 빠졌다. 네이버도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 정보기술(IT)주의 약세까지 겹치면서 액면 분할 직후 증가 대비 주가가 8.45% 하락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코스피는 상반기 900조 원, 하반기 680조 원, 코스닥은 상반기 760조 원, 하반기 430조 원 정도 거래됐다"며 "액면변경 중 비중이 높은 액면분할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이 많았던 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내 팹리스기업 첫 반도체 기술 수출 동운아나텍, 中시장 진출 신호탄

36억 투자 합작법인 설립도

동운아나텍 주가 추이 (단위: 원)



동운아나텍이 국내 팹리스(생산공장이 없는 반도체 산업) 기업 최초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칩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중국 시장 진출 신호탄을 쏘았다.

동운아나텍은 전날 중국 선전 쉘린지 테크놀로지(Shenzhen Shellinzi Technology)와 중화권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칩 관련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운아나텍은 선전 쉘린지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조인 테크놀로지 홍콩에 관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1000만 달러에 양도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동운아나텍과 선전 쉘린지 테크놀로지의 합작법인(JV)인 선전 쉘운 세미컨덕터에 제공될 예정이다.

실질 JV인 선전 쉘운 세미컨덕터는 동운아나텍의 기술력과 선전 쉘린지 테크놀로지의 자본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예정이다. 특히 동운아나텍은 36억 원가량을 투자해 4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아몰레드 기술 특허권과 지적재산권(IP) 자산을 JV에 양도하

는 대가로 수취한 320만 달러의 확보 자금을 자본 투자에 사용해 추가 비용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위장(Yu Jiang) 선전 쉘린지 테크놀로지 대표이사과 현지 투자자 추연제(Qiu YanJie)는 각각 33%, 27% 지분율을 보유하게 된다.

동운아나텍이 이번에 기술 이전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칩 기술은 아몰레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전원 공급 칩이다. 대형과 소형 사양 모두 필요한 기본 부품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많다. 다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재화한 기술로, 국의 시장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있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차명연 기자 blooming@

메디프론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1상 계획서 상반기 제출

메디프론이 상반기에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1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ND를 검토하고 임상 계획을 승인하면, 메디프론은 연내 임상 1상을 시작한다.

메디프론 관계자는 9일 "바닐로이드 수용체 효현제(TRPV1 agonist) 기전의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topical analgesics) 'MDR-652'의 비임상시험이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IND는 올해 6월 제

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형은 도포제 형태로 개발 중"이라며 "임상의뢰 기관(병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프론의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MDR-652)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주목 받아 왔다. 'MDR-652'는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공동 연구를 통해 확보된 신약후보물질이며 △대상포진 후 통증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통증 △심유근육통증 △수술 후 통증 등 신경 손상에서 유래된 통증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인콰에선 '팜나비' 사업으로 지정(2017년 말)받아 사업 진행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희민 기자 kjm@

gdiwelfare.org

사회복지법인 GORDO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삶의 행복을 선물할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종 류 | 기금후원, 물품후원
방 법 | 후원계좌 (농협 351-0950-7718-93,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 청 | 전화, 내방 (031-451-3910, 의왕시 오전로 27 2층)



♥ 후원해주신 후원금, 후원물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 4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규제 깐깐해진다

의무기간 내 양도 5000만원·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3000만원
과태료 올리고 수기로 관리하던 자료 '렌트홈'으로 일제정비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2017년 말 기준 임대등록은 25만9000명에 98만 채였는데 2018년 말에는 40만7000명에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일제 정비하고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제재감면 과정에서 검증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제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원점 돌아온 반포 3주구 재건축 새 시공사 선정까진 '산 넘어 산'

총회, 시공사 취소 가결했지만 현대산업개발 "가처분 신청" 반발
대우·대림·롯데·포스코 '의향서' 수주 탐나지만 본격 참여는 고민
일부 조합원, 총회 결정에 반발 '조합장 해임 추진' 갈등도 변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전경.

올해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3주구)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향후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9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이 조합은 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반포3주구 조합은 시공사 공개 경쟁입찰에서 두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당시부터 특화설계안과 공사범위 등을 놓고 반대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지 못했다.

조합은 이날 새로운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때문에 향후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합은 최근 주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시공사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관심을 가진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과 10일에는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건설사들이 뒤늦게 반포 3주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올해 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서 보기 드물게 대형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이 내세운 수의계약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

의 중론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입찰에 비해 특화설계 등 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주전이 벌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시공사 자격이 박탈된 현대산업개발만 하더라도 조합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총회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결과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달 20일 조합장 해임 총회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열린 총회도 정족수를 겨우 채워 어렵게 열린 상황에서 조합원 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건설사들로서는 부담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가 지 지켜 본 후에 수주전에 뛰어들지 결정할 것 같다"면서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수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반발도 있고 착공까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건설사마다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자 동네도 "꼬마 재건축"

정부, 소규모 주택정비 장려... '한남 시범' 추진키로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부촌 단지가 뛰어들기 시작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시범아파트가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남시범은 6일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민을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 단지는 총 5층, 4개 동, 120가구 규모로 준공한 지 50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한남더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이 즐비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큰 편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주민 대부분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어 조합설립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점은 단지에 부담되는 사안이다. 단,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이뤄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여러 지원책이 마련됐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용자, 사업시행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 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총사업비 70%까지 연 1.5% 금리로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 속도를 내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속속 등장했다. 경기 광명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7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8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도 시공사를 모집하며,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LUBAS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 잇몸 케어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無 불소

無 사카린 나트륨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주스 반용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파라벤

無 청강탄산 함유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서울기준〉

보증금 9억 낸 세입자도 상가 임대차법으로 보호

법 적용 보증금 상한액 인상 주요 상권 임차인 95% 혜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돼 법을 적용받는 상가임차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은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000만 원(현행 5억 원) △광역시 등 5억4000만 원(현행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 원(현행 2억7000만 원) 등

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갈아엎는 배추

9일 오후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한 배추농가에서 시장격리 조치된 가을 배추가 산지폐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스타트

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5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 역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는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6억9000만원’ 담합 신고보상금 최고액 나왔다

제품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합의를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 원이 지급됐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 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 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도 140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항공권, 출발 ‘16주前’ 가장 저렴

스카이스캐너, 한국 기준 요금 추이 분석... “평균 12% 싸”

“제주는 11주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출국 16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급부상한 여행지일수록 구매 시점에 따른 차이가 컸다.

전세계 여행 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3년간 한국인 여행객이 검색한 전 세계 22개국 해외 항공권 수익 건의 요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19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 (2019 Best Time To Book)’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16주 전에 예약해야 같은 조건의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출국 16주 전 항공편을 구매하면 평균 12%가량 요금이 저렴했다.

16주가 너무 이르다면 최소 9주 전에

는 항공권을 예약해야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출국 8주 전부터는 해외 항공권 요금이 연평균보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어떤 여행지든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을 예약해야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일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스카이스캐너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항공권이 일찍 예약할수록 더 저렴한 편이지만, 특히 급부상 여행지일수록 구매 시점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제주의 경우 출발 11주 전(-9%)이 항공권을 가장 알뜰한 요금에 예약할 수 있는 시기였다.

김소희 기자 ksh@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1970년대 女농구 인기, 지금 아이돌 부럽지 않았죠”

“지금 보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농구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 초등학교 5학년, 농구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무턱대고 들어 올린 손 덕분(?)이었다. 내성적이고 심지어 운동도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그는 “어쩌면 나의 농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연습벌레

그가 쟁겨온 앨범을 열자 그의 선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마치 한 장면도 잊은 적이 없다는 듯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때는~”, “이건~” 이라며 설명을 덧붙인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찍은 흑백사진부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젊은 시절의 사진까지, 마치 그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기분이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다. 바로 ‘박신자 선수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자’라는 문구가 써진 자료다. 가로도 아닌 세로로 써진 글자는 비장함을 더했다.

운동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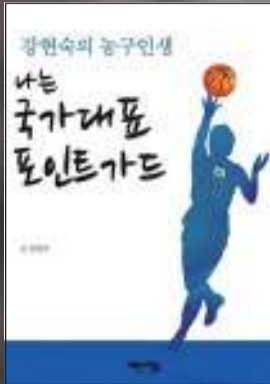
12세 소녀 농구하겠다 손 번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 매진 너무 피곤해 밥 먹다 잠든 적도

“박신자 선수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1967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우승팀이 아닌 준우승팀에서 최우수선수상 수상자가 탄생했죠. 그 주인공이 바로 박신자 선수였어요. 정말 대단해 보였죠.”

1999년 ‘여자농구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헌액된 박신자 선수의 인상 깊은 플레이는 새내기 농구선수였던 강 위원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매일매일 농구에 ‘몰인’하는 생활이었다.

“새벽에 학교에 가면 교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철문 사이로 가방을 밀어 넣고 담을 넘어서 체육관에 가곤 했죠. 오후에 본연습이 끝나면 남아서 또 연습했어요. 드리블 연습, 슛 연습 등 혼자 할 수 있는 연습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다가 잠드는 날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농구에다 쏟아부었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이 있을까. 그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주전으로 뛰었다. 비록 첫 데뷔 무대에서 골대 방향을 잘못



1970년대 여자농구 간판스타 강현숙

1970년대 여자농구의 아이콘, 강현숙

한국 여자농구 전성기의 중심인 강현숙, 박찬숙, 조영란, 정미라, 전미애 등의 스타군단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강현숙은 빼어난 미모와 실력으로 수많은 남성 팬을 몰고 다녔다. 1972년 청소년 대표팀으로 첫 태극마크를 단 뒤 1980년 은퇴할 때까지 국가대표로 맹활약한 강현숙(姜賢淑·64)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재정위원장을 만났다.



강현숙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재정위원장은 1980년 은퇴 후 여성으로는 사상 첫 한국농구연맹(KBL) 심판위원장을 지냈다. 1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2 무학여고 시절 3 국가대표 선수시절 4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미국팀을 상대로 승리하고 난 뒤 5 박신자 선수의 사진을 스크랩해 ‘박신자 선수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자’라는 문구를 적었다.

알고 역주행하는 바람에 자살골을 넣을뻔했지만 말이다. 그 후 8년간 국가대표선수 생활을 하면서 세계 베스트5에 두 차례나 선정되고, 1979년과 1980

년엔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팀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2위,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만남 그는 가장 특별했던 경험으로 북한팀과의 경기를 꼽았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은 여자농구가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대회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참가한 첫 아시아 스포츠 무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난생처음 북한 선수를 만난 1974년 테헤란 아시

아시아서 유일 ‘명예의 전당’ 오른 박신자 선수가 ‘롤모델’ 국가대표 주장 맡아 1979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 이끌어

안게임을 떠올리며 “참 할 말이 많은 경기였다”며 운을 뗐다.

“선수촌 셔틀버스를 타면 타국 선수들이 있든지 말든지 북한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엔 ‘조선은 하나다!’ 하고 고함을 쳤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물론이고 경기 전 몸을 풀 땀 우리나라 코트까지 넘어오면서 비매너의 꼴을 보여줬죠. (웃음)”

북한 선수들은 경기 내내 거칠게 굴었다. 그는 “실력은 우리나라보다 뒤쳐졌지만 괜히 겁이 났다”고 털어놨다.

“루즈볼 상태에서 볼을 다루는데 북한 선수가 볼이 아닌 김은주 선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친 거예요.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죠. 싸우지는 건지 경기를 하지는 건지...”

한국팀이 큰 점수로 리드하며 경기를 끌고 가자 북측은 게임 종료 2분여를 남기고 퇴장소동을 벌였다. 심판이 반칙한 북한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자 마치 준비해놓은 대본이라도 있는 양 일제히 항의하더니 한국팀을 향해 “너네 심판한테 돈 맥였구나”라고 소리치며 경기장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강 위원이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북한 여자농구팀을 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북한 선수와의 인연은 감동이 아닌 전투적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다.

“눈빛만 봐도 척척” 박찬숙과 콤비 경기 때마다 관중들 뜨거운 환호 38년 전 감동 자서전에 담으며 여자농구 전성기 돌아오길 기원

여자농구의 제2전성기를 바라며 “요즘 남자 아이돌 부럽지 않았어요.” 그가 기억하는 1970년대 여자농구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경기가 끝난 뒤 나오면 팬들에게 둘러싸여 껌짝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초등학교생, 성인들 가릴 것 없이 보내는 팬레터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1979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던 날엔 1층부터 3층까지 빈 자리가 없었어요. 경기하다 슛이 들어가면 그 많은 관중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는데... 상상해보세요. 소름이 끼치다 못해 희열을 느낄 정도였죠.”

특히 그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박찬숙 선수와의 패스 플레이가 특징으로 이어지면 관중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는 “박찬숙 선수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동료”라고 설명했다.

농구 코트를 떠난 지 38년, 그는 세 딸의 어머니이자 ‘손주 바보’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그의 농구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 ‘나는 국가대표 포인트가드’를 출간했다. 자신에게 돌아올 관심 보다는 독자들이 다시 한번 옛날 여자농구를 추억하고 그때의 사랑을 현역 선수들에게도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예전엔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지도 않았지만, 여자농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반면 요즘엔 종목이 워낙 많다보니 인기가 좀 분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많은 여자농구팀이 이젠 여섯 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한국여자농구연맹 재정위원장이어서 한국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얻다 보면 언젠가는 여자농구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정지은 기자 jungje94@ 사진/주민욱 작가 minwook19@hanmail.net



“문학 열망 꿈 이뤄... 이제 작가로 살겠다”

새로 나온 책

‘4선 의원’ 출신 신기남 소설가 ‘신영’으로 변신

“소설가 신영으로 심사받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정치인 신기남’은 결별하기로 작정하고 소설가 신영으로만 책을 내려고 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다시 오라고 하는데, 20년 했으면 됐죠.”

4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 신기남(67)이 돌아왔다. 자신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아닌 ‘소설가 신영’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푸른 바다 표지의 생애 첫 장편 소설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들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꿈을 이룬 것에 대한 뿌듯함, 수줍음 등이 담겨 있었다.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신작가는 지난 2년간 두 편의 장편소설을 썼다고 했다. 해군 장교로 근무했던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뒀던 소설이 1편이지만, 2편으로 여겼던 ‘두브로브니크...’를 먼저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국문과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법대 가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법대에 갔어요. 그 이후로 글을 쓰지 않다가 정치를 그만둔 2년여간 글을 쓰며 행복하게 지냈죠. 누가 출판해주나 싶어 막막하던 참에 임우기 출판사 대표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갖다 바쳤어요. 이 분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거



장편소설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을 출간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작가인 신기남 씨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래 법대보다 국문과 가고 싶었죠
정치 접고 2년간 글 쓰며 행복 느껴
정동영·천정배 전화와도 안 받고
첫 장편 ‘두브로브니크...사람’ 출간

든요. 첫 번째 소설은 연애소설 색채가 강하다며 역사와 지리, 철학을 담고 있는 두 번째를 내자고 하더라고요. 데뷔작이 된 거죠.”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를 배경으로 한다. 이곳에서 만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

소 재판관인 남자 주인공과 무대미술가인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안의 풍광을 담아내는 동시에 발칸반도의 잔혹한 현대사를 녹여냈다. 국회의원 시절 한국·세르비아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 몬테네그로를 여행하고 유고 내전 전범 재판 과정을 연구했던 이력이 도움됐다.

자리에 참석한 문학평론가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대개 ‘나 소설 써야지’ 하고 시작하면 소설적 문제가 아니거나 리듬을 타고 흘러가는 부분에서 아마추어 티가 나기 쉬운데, (신 작가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문체로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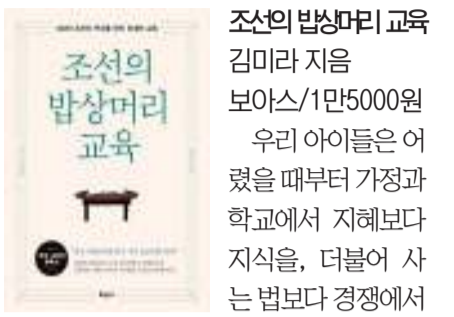
끝고 나가는 힘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권 안에서 조화로운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 작가가) 작가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기 작품 세계를 일궈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필명 ‘신영’에는 신선하고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Young’)을 담았다. 신작가는 “신기남의 경력이나 이력을 일체 안 쓰고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임 대표가 예의가 아니라며 만류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정했다. 이름이 영이니 소설이 외국으로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학적 본보기는 6년 전 작고한 최인호 작가다. 그는 “(최 작가는) 최초로 소설을 써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산 분”이라며 “(그분처럼) 깊은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재미도 있는, 동시에 영화화도 되는 등 팔리는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고 대학 때까지도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법대에 가면서 그 길을 돌아왔고, 40년 만에 여기까지 왔네요. 항상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치를 그만둘 기회가 생겼고, 다부지게 결심했습니다. 10년 전에 정치를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동영, 천정배 전화와도 안 받았습니 다. 이렇게 출판이라는 천행을 얻었는데, 포기할 수 없죠. 지금은 세 번째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기자 ksh@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 김미라 지음 보아스/1만5000원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지혜보다 지식을, 더불어 사는 법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훈련 받는다. 성공과 부를 삶의 최대 목표로 두고 매진한다. 한국은 전쟁의 잣대미에서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그 과정에서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한 나머지 민족의 정신적 가치는 밀려나고 말았다. 인성과 교육이 무너졌다. 그야말로 ‘동방무례지국’이 되고 말았다. 능력이 뛰어나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낙원으로 떨어지기 쉽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왕따, 학교폭력, 교사 폭행, 여성혐오, 갑질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던 조선의 교육법이다.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우리가 공부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 선조들은 ‘먼저 사람공부를 하고 나서 글공부를 하라’고 가르쳤다. 이는 조선시대 아이들이 배웠던 동몽교재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운다.’ 저자가 교육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 몇 년간 전국 중기를 찾아다니며 자녀 교육을 연구한 결과다.

그들의 교육철학은 한마디로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운다’이다. 집안의 가풍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한다. 자녀는 어른의 등만 보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율곡 이이, 이덕무, 박세무 등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하고, 아이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상문학상에 윤이형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

제43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윤이형(43·사진) 작가의 중편소설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가 선정됐다.

이상문학상 주관사 문학상상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제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을 밝혔다.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는 부조리한 현실적 삶과 그

고통을 견뎌내는 방식을 중편소설이라는 서사적 틀에 어울리게 무게와 균형을 갖춘 이야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상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작품에 나타난 자기 주제를 해석하는 치밀한 서술 방식과 함께 그 소설적 감응력을 높이 평가해 대상의 영예를 드린다”며 “특히 섬세한 언어 감

각과 인상적 묘사를 통해 거두고 있는 소설적 성취가 윤이형의 작가적 미덕이라는 점을 주목했다”고 평했다.

윤 작가는 지난 2005년 ‘검은 불가사리’로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해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 ‘큰 늑대 파랑’, ‘러브 레플리카’와 중편소설 ‘개인적 기억’, 청소년



소설 ‘졸업’, 로맨스소설 ‘셜랑’ 등을 썼다.

윤 작가는 “작년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뒤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슬펐다”면서 “그 슬픔에 매몰되기보단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을 소설에 담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위로와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랐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sh@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반값 할인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건강한 기해년이 되고자 프리미엄 할인 행사!!!



- 가정용**
- 제품명 뉴아쿠아픽(좌측)
모델명 AQ-300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제품크기 150x90x210mm
맥동수류 2,200회/분
- 휴대용**
-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모델명 AQ-220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제품크기 70x100x300mm
제품무게 440g(본체 260g, 충전기 180g)
맥동수류 1,400회/분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아쿠아픽 제품만의 강력한 맥동수류

아쿠아픽의 강력하고 뛰어난 맥동수류(탁탁 끊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잇몸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p>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p>	<p>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p>	<p>임플란트 주위염 예방</p>	<p>하나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 (4개의 제트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장치, 임플란트, 보철물 등의 장착 환자 추천 ● 분당 평균 왕복 2,200회 맥동수류 ● 구강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 기능성/편리성/만족성을 모두 갖춘 뉴아쿠아픽!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조작 -수압 조절 가능한 다이얼 -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호스 (한국·일본·유럽연합통합전기용품안전인증) 	<p>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해진 무접점 충전방식 ● 24시간 완충 시 최대 2주 사용 가능 ● 0.6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60g)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 인체공학적 제트립 설계 ● 세가지 세정모드 -NORMAL 일반적인 세정모드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정모드 -PULSE 잇몸 마사지 전용 모드
--------------------------------------	-----------------------------------	---------------------------	--	--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제주항공 명예사원 된 '동방신기' 첫 업무는 '번들서비스 이름짓기'

'고객경험 개선 TF' 팀원 자격으로 동료들과 상품 개발 회의 참석 등 회사생활 영상 폐북·인스타 공개 SNS 이용자도 명예사원 위촉 계획

동방신기가 첫 업무를 맡으며 본격적인 제주항공 사원생활(?)을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9일 '명예사원'으로 서비스와 상품의 개발 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동방신기의 회사 생활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동방신기는 2017년 제주항공과 최초 모델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 최고 한류스타'를 모델 전략으로 펼치던 제주항공이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에 이어 동방신기를 선택한 것. 제주항공은 동방신기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10월 이들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진정성과 지속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지난해 11월 제주항공으로부터 명예 사원증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회사 모델 역할과 함께 '제주항공 고객경험 개선TF' 팀원으로 소속됐다. 고객경험 개선TF는 '고객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고객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2차 '뉴 스탠더드 캠페인'의 일



제주항공에서 명예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왼쪽 세 번째)과 유노윤호(네 번째)가 동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주항공

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차 캠페인으로 '여행의 새로운 기준, 제주항공에 묻다'라는 주제로 고객들의 각종 의견을 듣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동방신기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번들한마디 찾기'였다. 이는 제주항공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번들 서비스'의 이름을 짓는 일이다. 번들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3종(사전좌석지정·사전수하물구매·사전기내식주)을 2PLUS, 3PLUS, Family PLUS 등의 옵션으로 묶어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때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주항공의 새로운 서비스다.

제주항공은 이들의 회사 생활 모습을 담은 화보도 '뉴제주어(newjejuair)'라

는 계정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공개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4월 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용자를 뽑아 '제주항공 명예사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제주항공X동방신기 팬페스티벌(가칭)'에 초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방신기가 제주항공의 명예사원으로서 직원, 고객과 함께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며 "이용자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안기옥 덕동원 대표

돼지감자 활용 6차 산업 일귀

안기옥(사진) 덕동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안 대표는 2011년부터 돼지감자를 활용한 6차 산업(1·2·3차 산업을 결합한 융복합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전남 순천시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울금, 고사리 등 친환경 농산물로 과자와 자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덕동원의 농장은 농촌 체험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돼지감자 꽃차 체험', '장아찌 수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덕에 해마다 8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 덕동원 농장은 지난해 농



친환경에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용재 연세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이용재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수는 광물학에 기초한 지구 내부 연구를 통해 지각판이 충돌하는 땅속 깊은 환경에서 지표에서는 관찰된 적 없는 초수화 점토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초수화(超水和·Super-hydration)는 특정 조건에서 물을 추가로 흡수해 팽창하는 현상으로 지진과 화산활동 등의 원인을 밝히는 데 쓰이고 활용된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국내외 가속기 연구시설을 이용해 땅속 200km 이상 섭입대 환경에 따른 광물의 변화를 연구, 그 결과를 2017년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 회장에 박용현 前경기남부지부장 당선

박용현(62) 후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2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제12대 회장의 임기는 이달 15일부터 3년간이다.



박용현 선임 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공약으로 무료연수교육 전국 확대, 자격시험 상대평가 관철, 공제료 인하 추진, 정보망 개편, 중개보수 현실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강경훈 前 우버코리아 대표 레진코믹스, COO로 영입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강경훈 전 우버코리아대표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했다고 9일 밝혔다.



강 COO는 홍콩에서 JP모건, 모건스탠리와 HSBC 사모펀드의 수석 매니저를 거쳤다. 2014년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모바일 차량 예약플랫폼 운영사인 우버의 한국 법인인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를 맡았다. 이후 교육 소셜 플랫폼 클래스팅 최고전략책임자, 글로벌 공유 자전거플랫폼 모바이크의 한국법인총괄대표를 역임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조현상 효성 사장, 신입사원과 연탄나눔 봉사활동

효성 신입사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을 진행하며 첫 대외활동을 실시했다.

효성 53기 신입사원 200여 명과 임원 13명이 8일 오후 성북구 정릉동 일대의 이웃들에게 연탄 1만 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신입사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골목 깊숙한 집까지 연탄을 나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효성나눔봉사단인 조현상(사진 왼쪽 두 번째) 총괄사장을 비

롯한 경인지역 임원들이 함께해 신입사원들과 나눔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단장은 "연탄이 작고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조 사장은 2015년부터 매년 신입사원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임직원들에게 효성인으로서 나눔의 책임과 기쁨을 독려했다. 작년에는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땅이



얼지 않도록 낙엽을 덮는 낙엽분토작업과 배수로 정리를, 2017년에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문풍지를 붙이는 방풍작업과 청소를 직접 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사

◆산업은행 <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 유병수 △구조조정본부 정재경 △자금지장본부 민인환 △IT본부 고관식 △KDB미래전략연구소 오재봉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 김보현 △강북지역본부 이행진 △경인지역본부 서성호 △중부지역본부 오준석 <부·실장> △비서실 김복규 △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건수 △벤처기술금융실 이용주 △넥스트라운드실 이준성 △간접투자금융실 이선호 △온렌딩금융실 문홍배 △중소중견금융실 정재영 △해양산업금융실 석종훈 △기업금융1실 안영규 △기업금융2실 윤종열 △기업금융3실 문용기 △기업금융4실 이해익 △기업구조조정실 김상일 △해외사업실 양

복승 △자금부 양승원 △자금금융실 윤병길 △발행시장실 이재원 △M&A컨설팅실 황길석 △PF1실 고석배 △심사1부 노진만 △심사2부 김근호 △여신감리부 조일래 △IT기획부 권용일 △금융전산부 조용주 △기획조정부 민경필 △영업기획부 김영진 △인사부 정호건 △산실실 신정근 △미래전략개발부 이근환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오종녕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병국 △윤리준법부 양기웅 △법무실 박진호 △소비자보호부 김길동 △영업부 정성욱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 유선열 △인천지역본부 오진석 △경기지역본부 이종배 △충청지역본부 장영규 △부산지역본부 김주형 △대구지역본부 임종학 △호남지역본부 전석문 <부서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이선희 <

부서장 전보> △인재개발원 이의장 △기술평가부 남광일 △성과평가실 이종학 △인사부 김대철 △사회가치경영부 윤재민 △기술보증부 최상규 △보증운영실 손종우 △기술거래보호실 이석중 △벤처혁신사업부 허운석 △업무지원부 곽효중 △ICT운영부 정철민 △리스크관리실 고용주 △홍보실 양정주 △비서실 송재연 △미래혁신연구소 임선형

◆두산인프라코어 <승진> △삼부 정태진 ◆산은캐피탈 <부장 승진> △송성 △오민교 △장상철 △조계현 △이동현 <부서장 전보> △투자금융3실장 조계현 △기업금융2실장 장상철 △인사실장 김진래 △여신심사실장 전중국 △검사실장 이동현 △채권관리단장 오민교 △회계관리단장 황현승 △강남영업단장 조수철

두산, 공동모금회에 성금 30억

두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완석(사진 왼쪽) ㈜두산 부사장과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부사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산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부음

▲임영숙 씨 별세, 양정석(에이블스토어 본부장) 씨 모친상, 노경아(이투데이 편집부 교열팀장) 씨 시모상 = 8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2-2290-9452

▲조맹순 씨 별세, 강윤열(대신증권 인사부 부장)·형열(재건자은교회 목사)·부열(창업지도 강사) 씨 모친상 = 8일,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55-214-1900

▲김덕만 씨 별세, 김성근(서울대 자연대 교수)·성준(J&C 대표) 씨 부친상, 송인복·계인숙(경남정보대 교수) 씨 시부상 = 9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11시 30분, 02-2072-2014

계사판

신성철 KAIST 총장, 美 명문대 동문상 신성철(66)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재료과학 분야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신총장은 KAIST 고체물리학과 석사를 거쳐 노스웨스턴대에서 재료물리학 박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박봉석씨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근부회장에 박 봉 석(58) 전 KOTRA 인재경영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박 상근부회장은 1990년 KOTRA에 입사해 호주 멜버른 무역관장,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장, 비서실장, 고객미래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자본시장 속으로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것이 주가 조정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의 전환이 쉬워질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 미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조로의 입장 전환 등도 계기가 될 수 있다.

2019년 주식시장은 작년 말의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지출을 인하 등 경기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부정적인 재료가 주식시장에 출몰할 수도 있겠지만 2018년 말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져 있어 긍정적인 소식이 반등 가능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말 코스피 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0.8배에 근접했고 주가 이익비율(PE)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발생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시장이 반응하는 데에서 몇 가

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배경에는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고 장기간의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이러한 장기 호황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가, 경기가 하강한다면 그 속도는 어떠한 것인가 등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더멘털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프리미엄을 받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던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보다는 낮아진 6%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점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을 쓸 수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6%대 성장률은 중국의 경제 규모나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본적인 상황 판단이나 펀더멘털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고민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

지는 것에는 중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졌던 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것이 주가 조정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에서의 전환이 쉬워질 것이다. 다만 실제로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 미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조로의 입장 전환 등도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계기는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거나 경제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번 실적 시즌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함인희의 손편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4일 어르신 모시고 새해 첫 장터를 다녀왔다. 이곳 조치원의 5일장은 4와 9로 끝나는 날 전통시장 터에 선다. 전통시장 입구 만두집에선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바로 앞에 자리한 묵밥 아줌마는 연신 단골들 상대하기 바쁘다. 씹새름한 뒷맛이 일품인 도토리묵에 잘 익은 김치 송송 썰어 넣고 참기름 적당히 두른 후 깨소금 솔솔 뿌린 묵밥은, 장날 이면 가장 먼저 시장바구니에 담기는 단골 품목 중 하나다.

시장통 안으로 더 들어가면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온다. 재래시장의 대표 맛집(?)에서 호떡을 맛보기 위한 줄이다. 값은 1000원에 3장. 얇은 호떡 껍질 안에 달달한 설탕을 듬뿍 넣어 바삭하게 구워낸 호떡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일품이다.

한데 호떡 맛보다 더욱 일품인 것은 호떡집 주인 내외분의 스토리다. 호떡 맛은 반죽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데, 남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내

를 위해 호떡 반죽을 한다. 준비한 양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하루 장사를 끝내고 함께 집으로 향한다는 부부. 당신 소유의 복숭아 농장(5000평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관리에 호떡집 운영도 만만치 않건만, 이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호떡을 대접해 드리는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단다. '우리 내외가 열심히 사는 건 행복하고자 하는 일'이기에 1년에 한 번은 꼭 부부가 손잡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신단다.

호떡집을 지나 오른쪽으로 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행복죽집'이 있다. 팔죽에 녹두죽 열심히 팔아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노라 은근슬쩍 자랑이 넘치는 주인덕 아줌마. 가게 한쪽 벽엔 상인대학 수료식 때 평생 소원이던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동짓날이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마침 재작년엔 딸 친구들이 우렁각시가 되어주었고 작년엔 며느리가 열일 짓히고 달려와 한결 수월했노라 하신다. 새알심 듬뿍 넣은 따끈따끈한 팔죽과 고운 빛깔의 까끌까끌한 녹

새해 첫 장날 만난 사람들



두죽은 역시 한겨울에 먹어야 제 맛이 나는 듯싶다.

죽집 골목을 빠져 나오니 작은 트럭에 하나 가득 야채를 싣고 온 청년 농부가 기다리고 있다. 마트에선 서너 가닥에 3000원이 훌쩍 넘는 대파가 이곳에선 두툼하게 묶은 한~다발에 단돈 5000원이다. 대파는 겨울 날씨엔 쉽게 상하지 않으니 화분에 심어 겨우내 드시라고 친절히 가르쳐준다. 인심만큼 좋다는 무도 두어 개 담고 아삭아삭 오이도 한 무더기 샀다. 어느새 단골이 되었다고 덤도 슬쩍 얹어준다.

나오는 길엔 여러 곳이 있지만 유독 북적대는 떡집에 들러 시루떡에 인절미에 콩

떡을 담았다. 어린 시절 별명이 '떡보'였던 난 명절이나 특별한 생일 아니면 구경도 못했던 떡을 요즘은 사시사철 편히 사먹을 수 있어 뿌듯해하면서도, 예전 그 떡 맛은 어디로 갔을까 입을 짝 다시기도 한다.

시골 생활 10년 차에 들어서니 이젠 장날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단골도 생겼다. 이곳에선 두어 번만 마주쳐도 어디서 온 누구시냐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곤 한다. 어느새 10년 지기인 듯 친밀함을 느끼게 된 까닭인가, 늘 어르신 모시고 함께 다니다가 행여 혼자 장보러 가면 '왜 혼자냐구, 어르신은 어디 편찮으시냐구' 근심어린 눈길을 보내주시기도 한다.

10년 이상 살았지만 옆집과 왕래 한 번 없는 아파트보다 이곳의 사람 냄새나는 장터가 나는 참으로 좋다. 시골 장터의 진짜 새해는 음력설까지 기다려야 할 테지만, 만두집 남매, 묵밥 아줌마, 호떡집 내외분, 죽집 여사장님, 야채 트럭 총각, 떡집 모자(母子)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인사를 전하련다. 새해에도 무탈하게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시길...

이투데이, 말투데이

☆ 칼 폰 린네 명언 "하나의 나무가 죽으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무를 심어라."

스웨덴의 박물학자. '식물학의 시조'로 불린다. 그는 자신의 저서 '자연의 분류'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생물의 학명을 속명(屬名)과 종명(種名)으로 나타내는 명명법인 이명법(二名法)을 창안했다. 오늘은 그가 별세한 날. 1707~1778.

☆ 고사성어 / 연년세세(年年歲歲) '연년세세' 보다는 '세세연년'으로 많이 쓰고, '세세' 또는 '연년'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 뒷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이의 축복을 빌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편지글 끝에 흔히 쓰는 용어이다. 중국 후한(後漢)의 문인인 장형(張衡)의 축훈가(祝勳歌) 말미에 "이 초야(初夜)의 기쁨 비할 데 없어/천년토록 연년세세 잊지 못합니다" 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세컨드 가전(Second Home Appliance) 1순위 필수 가전제품이라기보다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으로, 편리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메인 가전제품을 두고, 같은 용도의 가전제품을 성능에 따라 하나 더 구매하는 가전 틈새전략에서 나왔다. 기능은 유지하면서 부피, 가격 등을 줄이는 게 특징. 제품은 소형 청소기, 소형 밥솥, 미니 냉장고, 미니 TV 등 다양하다.

☆ 우리말 유래 / 열간이 뒹뒹이가 뚝뚝치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말한다. 소금에 조금 절이는 것을 '열간'이라 한다. 제대로 절이지 못하고 대충간을 맞춘 것처럼 다소 모자란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 유머 / 무서운 습관 한때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퇴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족과 외식하고 식당 문을 나섰다. 식당 주인이 "계산하셔야죠 손님!" 하며 급하게 따라 나왔다.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내는 날인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저희는 이미 공시를 다 했기 때문에 요.", "공시에 나온 그대롭니다."

공시를 보고 뭔가 의문점이 들어 취재를 하면 기업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알리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언뜻 보면 공시가 마치 만병통치약 같다. 물론 공시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맞다. 누군가는 "공시는 기업의 핵심 정보"라고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공시가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기업들이 '마지못해' 처리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는 생각이 든다.

사외이사 1년간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기업이 있었다. 이에 대한

기자수첩



고대영 자본시장1부/kodae0@

공시는 기업 정보의 최소 조건이 아니다

해명은 "이사회 때 불렀어야 했는데~"였다. 추가로 돌아온 답은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였다. 또 다른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증권설명서에 기재된 자사의 재무 위험성에 대해 캐묻자 "금감원이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라고 답했다.

책임감 부족은 비단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자자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기업들이 공시를 내고도 기사화를 꺼려하는 이유다. 기업도 알고 있다. 투자자들이 공시에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투자자들은 아주 큰 이슈가 아니면 기사가 나가기 전까진 기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다. 기사화 이후에야 놀라서 투자 커뮤니티에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또 다른 투자자의 추측일 뿐이다.

기업의 공시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는 그들에게 '짜라시'로 폄하되고 기사는 '레기'로 평가되기 일췌다. 그리곤 하는 말이 "기업을 좀 더 면해보자"라는 게 씩씩할 뿐이다. 그들이 믿는다는 게 전화통화 속 IR 담당자의 상냥한 목소리인지, 사진 속 기업 오퍼의 번듯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 당국이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능동적인 기업공시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 믿는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철학자·칼럼니스트



공자의 '무신불립', 이젠 '무안전불립'

〈信〉

〈安全〉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가 북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자 물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받은 그 사람은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큰일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대답한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 하는 일은 건물 안팎의 청소였다.

자부심 넘치는 청소원의 대답이 실로 존경스럽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몰라도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청소원의 삶은 참으로 보람차고 당당했을 것이다. 이 일하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망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할 때 인용된다.

NASA 청소부처럼 사명감 있었다면

그런데 유인 우주선을 달에 쏘아 올리는 엄청난 과학기술적 과제가 과연 NASA 건물의 청소 상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될까? 아마도 아주 미미하게, 아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는 눈곱만큼도 상관관계가 없다. 말 그대로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난해한 현대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존재의 세계는 그 어떠한 사물이나 사해도 여타의 사물이나 사건과 전적으로 무관하지는 않다. 대단히 간접적이고 대단히 우회적으로라도 모든 사물과 사대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 이런 특성은 마치 엄청나게 큰 그물의 한쪽 끝이 그 그물 전혀 반대쪽의 그물눈과 결국은 연결돼 있는 점에 비유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이리저리 연관된다. 얽히고설킨다는 것이다. 최근 널리 쓰이는 '나비효과'라는 용어는 존재 세계의 이런 성질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안한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왔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세월호 사고는 제쳐 놓더라도 그러하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기차 탈선, 화재, 가스 폭발, 펜션에서의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언론을 도배했다. 불과 사나흘 전에 20대의 새파란 젊은이가 대형 장비에 끼여 죽은 끔찍한 사고가 보도됐다. 여러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 안전의식의 현주소를 말할 때 흔히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이라고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아예 아무런 지각능력이 없는 병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해 '불감증'이라는 딱지가 붙는 게 단지 명칭 문제에 불과한 것일까? 우선 우리의 안전의식을 점검해 보자. 다른 건 다 제쳐 놓더라도 비슷한 사고와 대응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만으로도 병적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고 배경에는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실한 시공, 지극히 형식적인 안

전점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매뉴얼, 미비하거나 폐쇄된 비상탈출구 등의 문제가 늘 딱하니 버티고 있다.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도 분명한 원인 규명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그야말로 누더기를 열기설기 꿰매듯이 성급히 마련된다.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잦아들 만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은 평상심(?)을 회복한다.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웃는다. 굳이 이런 비유를 쓴다면 우리의 안전의식은 '소 잃고도 외양간 팽개쳐 두기' 또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 하기'에 가깝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원인 제공자나 이와 비슷하게 연관된 사람들만이 유독 악독하거나 예외적으로 낮은 안전의식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안전의식도 국민의 평균 수준인 것 같다. 안전 관리와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

나라가 아예 존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뜻은 단어가 역사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 산업사회에서 불안정하다는 게 무엇인지는 공자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원시적 농경사회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공자가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첨단 산업사회에 산다면 뭐라고 말할까? 안전을 믿음(信)의 기초라고 또는 믿음보다도 앞서 충족시켜야 할 요소라고 말할 것 같다. 아마도 '안전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 [無安全不立]고 말할지 모른다.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지만, 그 믿음은 굳건한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사소한 행동도 인간의 생명과 연결

세삼스러운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한 개인의 생명은 전 우주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것이고 일단 죽으면 되살릴 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약 중에서 인간 생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다. 안전불감증이 지극히 나쁜 까닭은 설명 애초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시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할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지난해 12월 8일 강릉발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온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가 '믿음(信)'이라고 말한 공자가 지금과 같은 첨단 산업사회를 산다면 안전이 믿음의 기초 또는 믿음보다도 앞선다고 말할 것 같다. 뉴스

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하면 점점 대상자에게서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생트집을 잡으려거나 심지어 무슨 뇌물을 기대하는 걸로 오해받는 경우조차 있다. 일상적 대화 가운데서도,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심한'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 경시나 무모함이 대범함이나 담대함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결국 국민 대다수의 안전의식은 심각한 질병 수준의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음이 분명하다.

특하면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터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판에 어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은유적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붙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도 아닌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다.

백성의 믿음보다 더 기본적인 안전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공자와 제자 자공(子貢)의 문답이 나온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부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튼튼히 하고[足兵], 국민의 믿음을 얻는 일[民信]"이라고 대답한다. 자공의 이어지는 질문에 공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둘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서도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고 단언한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일자리 정부' 고용참사, 올해 더 비관적

사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000명에 그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만 7000명 줄어든 이래 가장 저조했다. 실업자 수는 107만 3000명에 이르러 2000년 이후 최대였고, 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인 3.8%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의 31만 6000명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규모다. 정부의 당초 전망치 32만 명은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전에 내놓은 수정전망 18만 명의 겨우 절반 수준이다. 작년에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도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용시장 붕괴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국방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질 좋은 제조업이 1년 전보다 5만 6000명, 도소매업 7만 2000명, 숙박음식업 4만 5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만 3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부진과 구조조정, 자영업 침체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용참사의 결정적 요인은 최저임금 등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작년 16.4%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으로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로 취약계층들이 몰리는 이들 분야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 고용이 늘어난 곳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서비스 분야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지속성도 없다.

문제는 올해 고용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작년 이어 최저임금이 또 10.9%나 인상됐고,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 임금 부담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처지로 내몰렸다.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15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어렵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상반기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란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인데,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바닥이다. 주력산업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마저 쇼크 상태의 부진에 빠졌고,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후퇴 등 경기 하방 요인만 가득하다. 투자 확대의 전제인 규제 철폐는 늘상 말뿐이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없다. 새로운 미래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뻔한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



교착(膠着)상태

북한의 핵 폐기를 두고 벌이는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므로 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정부도 중재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미 양측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착은 '膠着'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아교 교', '붙을 착'이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아교 붙임'이라는 뜻이다. 아교란 아교포를 말하는데 아교포는 짐승의 가죽이나 힘줄, 뼈 등을 진하게 고아서 굳힘으로써 끈끈하게 만들어 마치 쌀이나 밀가루의 전분질에서 빼낸 전떡거리나 물질인 풀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또한 종류의 풀을 이르는 말이다. 전분질로 만든 풀은 종이나 형겔 따위를 붙이거나 뻗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고, 아교포는 가죽이나 목재 등을 붙이는 데에 사용한다. 아교포가 전분질로 만든 풀보다 훨씬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용도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접착력이 강한 아교포를 붙여 놓으면 붙여 놓은 상태를 더 이상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요지부동인 상태가 바로 교착 상태인 것이다.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딱 달라붙어 있는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즉 팽팽하게 맞서 있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변화를 보임으로써 종전의 틀을 깨어만 교착 즉 '달라붙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짧은 생각인지 모르나 이제는 미국이 통 큰 결단을 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경제 제재를 풀었음에도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얼마든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 미국에 있으므로 힘이 있는 미국이 먼저 교착상태를 벗어나는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이다. 양보란 본래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던가!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AI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기에
준비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마침내 완성된 SK텔레콤의 5GX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